

문재인 대통령,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 회담을 갖고 에너지·자원·인프라 협력, 보건·의료 협력, 문화·교육 협력, 환경 분야 국제 협력, 한반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증진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제시한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발전을 위한 전략은 국민을 위한 정부, 법치주의, 취약계층 보호 등 우리 정부와 국정철학이 같다"면서, "2019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이어 오늘 채택할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협력이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되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고위 인사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정부 간 경제협약체제를 통해 실질 협력 사업들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은 향후 양국 교역 및 투자 증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인 만큼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한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은 중요한 투자국이자 기술협력국이요, 양국은 사람 중심의 사회복지 국가를 지향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내년 한-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하는 한편, 고려인 정주 85년을 맞아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좋은 구상으로 함께 검토하자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자원 및 공급망 협력 분야와 관련 "이번에 체결되는 '에너지 대해 채널 구축 MOU'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효율 개선, 노후발전소 현대화 등 다양한 에너지 분

야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희소금속과 동합금 생산기술 협력 MOU'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융합하여 상생 협력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내 최대 개발 협력 대상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2022-2024 무상원조 협력 프로그램 MOU'를 갱신하여 보건, 교육, 산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개발 협력 사업이 우즈베키스탄 사회·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ICT 협력 MOU' 개정을 토대로 인공지능, 디지털경제 등 신사업 분야 개발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2023 세계관광기구 총회 유치에 대해 축하 인사를 전했고,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말했다고, 문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발전 전략과 한국의 뉴딜 정책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양국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상호 신뢰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내실있게 진행된 것을 평가하며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발전 전략과 한국판 뉴딜 정책은 많은 접점이 있으므로 연계가 중요하고, 다각적인 협력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간 네 번째 정상회담으로, 양 정상 간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재확인하는 한편, 신북방정책의 핵심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광수기자

종교시설 방역강화...미접종자참여시 좌석 30%, 최대 299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종교시설도 오는 18일부터 미사·법회·예배 등 정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해 이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교계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정교 교류활동의 인원 축소,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교 교류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명까지 참여하도록 축소하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한다.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이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PCR음성자·18세 이하·코로나19 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으로 구성할 경우 100% 가능했던 기존 수칙보다 강화된 것이다. 소모임 인원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축소된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이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가능한 만큼 성경·경전 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에도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도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 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모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

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체부는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무수칙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시 칸막이 설치하고개인접시에 덜어먹기,노래출동비말발생행위 자체 등 취약계층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준수필요 -취약계층이 아니라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 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첫 15개사 선정...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육성

경기도는 16일 안산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 박성남 환경국장과 유망 에너지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망 에너지기업 인증 수여식'을 열고 15개 선정기업에 대해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내 에너지기업을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유망에너지기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6~7월 도내 에너지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기업의 에너지 기술성, 성장가능성, 기업경영의 전략 등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서류평가 그리고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15개사를 선정했다. 15개사는 ▲태양광 분야에 에스피브이㈜, ㈜솔라플레이, 한양전공㈜,

리셋컴퍼니(㈜) ▲수소분야에 ㈜지필로스, 가드네(㈜) ▲에너지저장(충전) 분야에 지투과워(㈜), ㈜편프킨, ㈜티앤디, ㈜티에스스틱스 ▲에너지효율 분야에 ㈜에너테크, ㈜큐아이티, ㈜안지오바이크, 케빈랩(㈜), 하나테크 이다. 특히, 성남시에 위치한 리셋컴퍼니(㈜)의 경우 태양광패널 무인정소로봇 운영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앞으로 탁월 폐태양광패널 범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양광 폐패널 자동 수거와 분해 기술을 개발하려는 비즈니스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또 용인시 ㈜지필로스는 그린수소 생산시스템과 연료전지 전력변환 시스템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인증서(인증기간 3년)와 현판을 수여 받고, 국내외 인종, 마케팅, 지식재산 획득 등에 필요한 기업맞춤형 사업자금 2천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기업은 국가에서 정한 에너지 중점기술분야(4대 16개 분야) 기업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분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체 매출액 중 50% 이상 에너지 관련 매출이 있어야 한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에는 전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 중 20%에 해당하는 1만7,000여 개의 에너지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만큼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예비 高1,2,3 대상

SKY대 합격 및 수능만점 필수영어

2개월 단기 완성

열공 Study Cafe 무료 사용!

가장 어려운 영어 가장 쉽게 배우는 비법!

40년 경력 박사 직접지도

수강료 후불제

N skymt.kr

지금 바로 skymt.kr을 검색해 보세요

SKY대 쉽게 가는 길! SKY멘토스쿨 02-897-2050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 감귤
출하정책, 도지사 공백 여실히
나타나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와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있어야 할 감귤농가들이 한숨과 근심에 있다”며,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절박한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최근 “가공용 감귤 출하를 위해 길게 늘어난 차량행렬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은 노지감귤 처리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감귤가격이 호조세라고 하지만 농업인들의 체감은 반대”라고 하였다.

특히 “감귤의 상품 외 규격에 대한 처리가 매우 미흡하여 농업인들의 불만이 매우 달하고 있다”며, “가공용 감귤을 납품하기 위해 업체를 방문했지만, 5일 동안 아침부터 출서기와 되돌아가기를 반복했다”는 농가의 사례를 들며, “감귤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하였다.

실제 “노지감귤에 대한 최종 관측 조사 결과에서도 규격 외 감귤이 당초 예상보다 만만 이상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농업인들의 잘못이기 보다 기상요인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라며, “농업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격 외 감귤이 발생하였고, 가공용 감귤 처리 등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유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당초 극조생 감귤에 대한 시장격리를 추진하면서 계획량인 1만5천톤보다 신청량이 2만8천톤으로 많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당초 약속했던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알려지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하였다.

끝으로 “농업현장에서 도지사의 공백을 꼬집고 있다”며, “올해산 노지감귤의 원활한 처리 방안에 마련에 단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최재은기자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2022년 ‘자치분권2.0 새 시대’· 의회가 선도해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2021년 의원 중무식’에서 자치분권 실현에 있어 경기도의회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하며, 임인년(壬寅年) 새해에 ‘자치분권2.0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역이 될 것을 동료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경기도의회는 17일 오후 마지막 회기인 제356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 경기도의회 의원 중무식’을 끝으로 올해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송년사를 통해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출발해 활동에 제약이 컸지만, 많은 일을 이뤄냈다”고 평한 뒤 “올해 의원발의 된 조례만도 380여 건으로 어느 시기보다도 모범적으로 활발한 조례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어 “내년 초 청사 이전으로 경기도의회는 효원로에서의 30년을 뒤로하고 광고시대를 시작하게 되며, 1월부터 전 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지금 우리는 중요한 역사의 중심에 서 있고, 10대 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적 시작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현국 의장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경기도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회가 지금껏 자치분권 선두에 서서 지방자치를 이끌었기에 새 전기를 맞이할 수 있었듯, 앞으로도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이끌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2022년 새해에도 자치분권2.0 시대의 역사를 시작하는 주역으로서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 중무식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 및 상임위원장단,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

1) 등 도의원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무식 직후 이어진 시상식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13명과 3개 우수위원회에 대한 표창 및 1개 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패가 전달됐으며, ‘제11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에 25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한편, ‘자치분권2.0 시대’란 지난해 말 32년 만에 전 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주민주도의 자치분권 시대를 의미한다.

조혜영기자

충남도의회,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검증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조경훈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특위는 조 후보자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원의 현실적인 운영 방향, 현안 해결방안 등을 물었다.

조 후보자는 복지·돌봄 공공성 강화와 더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을 만들기 위해 ‘배우고, 나누고, 즐기는(배·나·즐/Active Ageing) 복지문화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협동효를 조직관리, 투명한 재정관리, 포용과 소통의 업무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 적극 대응함으로써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충남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회서비스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사회복지시설 위·수탁에 따른 민간 기관·시설과의 갈등, 노사 갈등, 조직 거대화 우려, 업무 성과 부족 등을 지적하며 후보자에게 대책 및 해결방안 등 심도 있는 질문을 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선도하고, 종사자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민간과의 상생을 이루어내야 할 충남의 주요 공공기관”이라며 “인사특위는 인사청문을 통해 성실하고 우수한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자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는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되며, 이후 도지사에게 송부된다.

최정근기자

대구시의회, 내년 지방선거 깨끗하게 치러낼 것

내년 선거 앞두고
대구시의회-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대구광역시의회는 16일 오후 13시30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의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원대상 선거법 교육을 제안함에 따라 대구시의회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성사되었다.

이날 교육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조경기 홍보과장이 강사로 나서 기부행위 제한 등 평소 의정활동 수행 관련 법령 및 사례, 지방선거 관련 법령 제한사항을 안내하고, 참석한 의원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구체적 사례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장상수 의장은 “정례회의 바쁜



박종재기자

전라남도의회 민병대 도의원, ‘여수세계박람회장 국비 지원’ 촉구

내년 정부예산에 여수세계박람회장 운영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박람회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장 운영비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병대 의원은 “정부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 지 불과 4개월 만에 사후활용 계획을 백지화하고 매각을 추진했지만 지역여론에 막혀 중단됐다”면서 “지역민들이 사후활용 방안으로 COP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가 두 번이나 일방적으로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에 양보를 반복하면서 전남과 경남 5백만 도민의 열망이 모두 허사가 됐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이번에는 기재부의 박람회장 예산 지원 일몰 선언으로 2019년부터 쪽지예산으로 근근이 지원받던 박람회장 운영예산이 내년부터는 완전삭감 되고 말았다”며 “이



는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이었던 박람회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또다시 지역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의문에서는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통해 남해안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약속이행과 박람회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위원장,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병대 의원은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수세계박람회장 운영비 국비 전액삭감 이후 예산지원에 대한 전라남도의의지가 없는 것을 지적하며 박람회장 운영지원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역설했다. 그 결과 ‘여수세계박람회장 시설보수 사업비’ 3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계상 시키는 등 박람회장 운영의 불씨를 살렸다.

김영만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유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정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도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 2612-2959
팩 스: (02) 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온심마켓

영양군 우수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온심마켓

https://yyg.go.kr/onsimarket
문의전화 054-682-6277

종로구 황학정 국궁전시관, '황제의 활' · 등 풍성

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 드는 겨울, 황학정 국궁전시관에서 우리나라 전통무예인 국궁을 체험하며 이번 겨울을 뜻깊게 보내는 건 어떨까?

사직동에 위치한 황학정은 고종 황제가 사예(射藝, 활쏘기)를 중흥 시키고자 1899년 경희궁에 세운 활터였다. 일제강점기 때 지금의 자리로 옮겨져 120여 년 동안 국궁계의 수장이자 전국 활터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황학정은 1974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5호에 지정되고, 지난해 '활쏘기'가 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종로구는 국궁 문화의 활성화를 돕고 미래세대에 국궁의 명맥을 전하고자 2014년 9월 황학정 내에 국궁전시관을 개관했다.

한민족 공술의 역사와 문화를 알 아볼 수 있는 각종 유물과 자료를 전시 중이며, 우리 활의 우수성과 특수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활쏘기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는 지난 5월 전면 개편된 황학정 국궁전시관에서 황제의 활 전시회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영상실과 자료실이 새롭게 구축돼 다양한 매체로 우리 활의 우수성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10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여 석공을 만들어 직접 쏘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전통 무예의 우수성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활쏘기 체험 프로그램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사 중에 있어 내년 재개할 예정이다. 전시회 및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황학정 국궁전시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황학정 국궁전시관에서 우리나라 전통문화인 국궁의 우수성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연말 기념 어르신 메타버스 작품전시회 온라인 공연 개최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에서 연말 어르신 축제 '2021년 느티 문화예술발표회 & 새로이 커뮤니티 페스타'를 메타버스(제페토)와 유튜브를 통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올 한 해 신중년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장으로 △온라인 문화공연 △메타버스 작품전시회 △Meta-Mas, X-Mas 체험 등 총 3가지 테마로 구성되었다.

먼저, 온라인 문화공연은 느티나무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생과 새로이커뮤니티 회원들이 직접 꾸미는 무대로 총 20개팀 130여명이 참여했다. 바이올린, 기타교실, 팝송교실, 행복동화 등 12팀(80명)의 문화예술 클래스 회원과 기타, 색소폰(에스모아 하모니), 일본어, 순가락 난타(시니어드림) 등 7개팀(50명)의 새로이 커뮤니티가 공연을 하고 영상 콘텐츠를 만들었다.

공연 콘텐츠는 시니어 크리에이터들과 제페토 가상 아바타가 호흡을 맞춰 진행을 하며, 다양한 공연 외에도 느티나무쉼터 IT교육봉사단인 스마트폰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유익한 퀴즈풀이를 통해 참여하는 재미도 더할 예정이다. '2021년 느티 문화예술발표회 & 새로이 커

뮤니티 페스타 영상'은 12월 16일 시니어 전용 유튜브 채널인 '서초할마할마이야기'에 공개된다.

아울러, 메타버스(제페토)에 실제와 똑같이 구현된 복직관을 크리마스 콘셉트로 꾸며 어르신들이 연말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복직관 내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그린 미술작품 50점을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메타버스(제페토) 전시한다. 전시 작품은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홈페이지 스마트 갤러리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인 '느티나무쉼터'에서는 매년 신중년들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인 자조모임인 새로이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코로나로 대면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네이버 '제페토'에 어르신 지역명소인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를 가상공간으로 만들고 가을맞이 트롯 미니콘서트, 메타버스 체험이벤트 등 어르신 참여 콘텐츠를 진행 한 바 있다.

느티나무쉼터 회원 이00 어르신

(65세)은 "연말이면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어렵다. 하지만 그동안 틈틈이 연습했던 연주와 작품을 영상으로 남기고, 메타버스라는 곳에서 볼 수 있다니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참여를 위해 홈페이지, 유튜브, 메타버스(Metaverse) 가상공간에서 연말 발표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대면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코로나로 지친 어르신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한해를 돌아보며 잠시나마 웃음 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경단녀 자존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자존감 회복 온라인 특강 실시

영등포구가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단녀'가 된 여성들이 잃었던 자존감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구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고양하고 사회적·경제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년 '경단녀 자신만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들이 온전한 나를 찾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존감 회복 특강'을 마련했다. 이번 특강은 유튜브를 활용하여 강사와 참여자 간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 형태로 진행된다. '경력단절 쉽게 탈출하기!'를 주제로 ▲자존감 확실히 올리는 법 ▲스스로 행복해지기 ▲직장에서 사랑받는 법 등에 대해서 다룬다.

특히 육아 블로그, 칼럼 등을 연재하며 주부작가 및 '육아아빠'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이정수가 이번 강연을 도맡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재미있고 유쾌하게 강연을 이끌며, 실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충에 공감하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 강연 후에는 관내 취업지원센

터인 여성늘품센터,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대한 소개도 진행된다. 센터 담당자가 직접 나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창업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여 강연 참여자들의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번 특강은 별도 신청 없이 경력단절 여성, 육아맘 등 관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8일 13시 유튜브 채널 'K클래스'에 라이브로 접속하면 된다.

아울러 실시간 특강을 놓친 주민들을 위해 강의 내용을 편집하여 구청 유튜브 채널인 '스튜디오 티움', 여성늘품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특강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자존감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취업의지를 다지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여성들이 가정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질의 취업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성동구, 필수노동자 6,600여 명에 안전물품 지원해

서울 성동구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간 필수노동자 6,600여명을 대상으로 방역마스크 등 안전물품을 지원했다.

앞서 성동구는 지난 해 9월, 12월과 올해 2월, 4월, 9월 총 5차례에 걸쳐 대면 노동을 하는 돌봄·보육·보건 의료·공동주택·운송업종 종사자 등에게 KF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안전물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해 일상 생활이 잠깐 멈춘 시기에도 우리 사회의 정상적 기증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화두를 던진 성동구는 전국 최초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슈 확산을 위해 힘쓴 결과 '필수업종종사자법'이 제정되는 등 정책 확산에 앞장서었다.

법정무 차원에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중단없는 필수업무 수행이라는 목표 아래 ▲필수분야 방역강화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사회안전망 확대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전국 81개 기초,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적인 정책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는 지난 9월 필수노동자 조례 제정 1주년을 맞아 필수노동자 유공자 표창 수여와 함께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상황에 대한 안전대응책 책자 및 교육동영상을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으며, 마스크 등 안전장구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정책확산 및 필수노동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병행하는 등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에 대한 법제도화는 모든 과정의 시작"이라며 "필수노동자 존중과 보호, 권익증진을 위해 실현가능한 정책 발굴, 실질적인 지원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강성원/기자

마포구가 숲을 선물합니다, 취약계층에 치유식물 나눔

"땀뿜! 어르신, 혼자 계시느라 적 적하셨죠? 마포구에서 숲 배달 왔습니다"

마포구가 지난 13일부터 지역 내 소외계층 1700여 명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의 치유식물 나눔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는 치유식물 나눔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지쳐있는 주민들에게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치유식물을 전달받은 주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었는데 집에서 식물을 키우며 건넸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주셨다"라며 "주민 호응도를 고려해 올해도 치유식물 나눔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화훼농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 치유식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화훼농가를 지원해 경기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반영되었다고 덧붙였다.

조상순/기자

광진구, 전 직원 대상 코로나19 PCR 선제 검사 실시

광진구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1주일간 '광진구 공무원 특별방역주간'을 운영한다.

우선 구는 16~17일 이틀간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무증상, 잠복감염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직원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검사 대상자는 기간제근로자와 사회복무요원 등이 모두 포함된 광진구청 및 보건소 전 직원이며, 구청 내 민원복지동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별도 설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로 순번을 정해 진행하고, 검사 후 업무에 복귀한다.

미 검사자는 이번주 내 주말 및 야간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개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다이를 위해 구는 서울시 지역 내 화훼농가를 통해 피어리스, 고무나무, 버킨 총 3종의 치유식물 1700분을 확보했다. 해당 식물들은 실내에서도 잘 자라고 관리가 쉬운 식물로 스트레스 완화 및 실내공기정화 기능이 탁월하다.

구는 이번 달 말까지 지역 내 취약계층과 독거어르신 1700여 명에게 동주민센터 전담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협업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주민센터방문 수령 방법으로 치유식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홀로 계신 어르신 및 소외계층의 안부 확인을 통한 교감을 확대하고 올바른 치유식물 관리 방법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유동근 마포구청장은 "미세먼지에 강한 치유식물을 돌보며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식물의 치유 에너지도 긍정적인 기운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며 "연말을 맞아 주변에 유희하고 힘든 주민이 없도록 보다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은평구, 2021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 '대상'

서울 은평구는 '2021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복지사업평가'는 지자체 복지수준 제고와 국정과제에 대한 지역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매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은평구는 올해 평가 중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대상상을 받으며 2018년부터 연속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구는 선도적인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정책을 개발해 적극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활성화 노력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올해 구는 소·민·관 협업 전담체계 '사회적경제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 △ 사회적경제 동반성장 판로지원을 위한 '은평구 지역특화 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했다. 구의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 △ 건강한 은평청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청년 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조직 중심의 '은평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 등 기존 사업도 민·관이 함께 꾸준히 노력하며 올해 대상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현재 328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에 집중할 때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주민 한분 한분께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금천구, 온라인으로 따뜻한 온기 나누는 '보육교직원들의 밤' 실시

금천구는 12월 16일 지역 14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21년 보육교직원들의 밤 '온(ON)라인으로 온(溫)기를 나누는 따뜻한 밤' 행사를 실시했다.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 방식과 최소한의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140개의 어린이집이 각각 한 팀을 이뤄 '금천구보육교사'로 7행시 짓기, 랜선 골든벨, 랜선 단체 촬영을 통해 2021년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모범 보육교직원 표창과 놀이사레 공모전 시상식이 있었다. 모범 보육교직원 표창은 한 해 동안 양질의 보육을 위해 헌신한 46명의 모범 보육교직원을 대표해 6명의 직원에게 대표 시상했다. 놀이사레 공모전은 놀이 중심의 보육을 실천하고 영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고, 최우수상을 받은 구립독산분동어린이집 포함 6개 어린이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미경/기자



C

capital area

수도권 I

4 문화매일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인천 강화군, 동계 직장체협 대학생 모집

강화군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겨울 방학을 이용한 공공기관 직장체협 기회를 제공한다.

군은 대학생들에게 공직자와 함께 근무하는 직장 경험을 통해 군 정체성의 기회 제공하고 경력형성과 자기개발에 필요한 학비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학생 직장체협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동계 직장체협은 당초 7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70명을 증원한 총 140명의 대학생을 선발한다.

참여대상은 관내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둔 전문대 이상의 재학생 및 휴학생이다. 단, 최근 4년 간 강화군 대학생 직장체협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이어야 하며, 수료자, 졸업생, 재적생, 사이버대, 방송통신대생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강화군 홈페이지에서 하면된다. 전산추첨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며 추첨 결과는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최종 선정된 대학생들은 2022년 1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 15일씩 2기로 나누어 군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사무소에서 민원안내, 행정 및 사회복지 업무보조 등의 직장체협을 하게 된다.

김종남/기자

오산시, 수도권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 공간인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가 16일 개장식을 갖고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수도권 최대 규모 반려동물 복합문화 공간인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가 16일 개장식을 갖고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개장식에는 광상욱 오산시장,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 등 오산시 인사들과 반려동물 공존문화를 만들기 위해 오산시와 파트너십을 맺은 SBS의 박정훈 대표이사, 민인식 시사교양본부장을 비롯한 방송관계자, 펫 산업분야 인사들이 참석하여 개장을 축하했다.

개장식은 SBS TV동물농장의 대표 MC 정선희와 토니안이 행사를 진행

했다. 행사 중 노후화되고 열악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상부를 복개해 반려동물테마파크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은 경과보고와 오산 시민들이 함께 돌보던 떠돌이 강아지 사연이 공개돼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다.

광상욱 오산시장은 "시대를 앞선 창의적 상상력으로 시작한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반려시대를 맞아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테마파크가 되기 위해 지자체와 방송국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고양시 여성회관, '시민 행복나눔 행사' 개최

수강생 제작 영상 발표, 시민 작품 전시 등 진행

고양시 여성회관이 재개관을 기념해 지난 16일 '시민 행복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 및 시 관계자가 참석해 여성회관 재개관을 축하했다. 모든 행사는 사전예약자에 한해 현장 참석 허용, 방역 패스 도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루어졌다.

기념 행사에서는 여성회관 수강생이 직접 제작한 여성회관 리모델링 경과를 담은 영상 작품, 고양TV가 제작한 수강생 인터뷰 등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소리' 밴드의 개막 공연과 '소노리떼' 팝페라 공연도 진행됐다.

이날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도 동시 진행했다. 강아지웃, 민화, 유화, 서예, 팝아트, 사진, 생활한복, 도예, 꽃꽂이, 캘리그래피 등의 시민 작품과 리모델링한 여성회관을 유화, 팝아트로 표현한 작품도 전시됐다.

시 관계자는 "여성회관 수강생이 오키나와로 작곡·연주한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준비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재준 고양시장 "1999년에 오픈해 20여년을 지나오며 여성 취창업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해 온 여성회관이 편리한 기능개선과 현대적인 내부부 단장을 마치고 시민 결의로 다시 오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경기도, '2021 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소' 성과공유회 개최

경기도, 12월 16일
용기원에서 '지능형
시제품 제작소
성과공유회' 개최

경기도내 우수 연구 결과를 상용화하기 위해 제작 설비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2021 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소'의 성과공유회가 지난 16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렸다.

주영창 용기원 원장과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과공유회는 1차 연도 사업성과 보고와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 우수 사례 발표, 도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학생과 기업들이 연구 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및 업 등으로 진행됐다. 41개 지원 기업들은 융합기술 시제품들을 시연

실에 전시해 시연과 홍보를 실시했다.

2021 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소 사업은 지난 8월 26일 개소 이후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공모전과 상시 지원을 통해 도내 41개 기업에 기계/전자부품 설계 제작과 부품 등 재료 지원을 해줌으로써 제품 차별화, 경쟁력 제고와 매출 증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해석된다.

또한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한 수원 하이텍고, 수원 삼일공고, 안양 평촌경영고, 파주 세경고를 대상으로 2달간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 ▲파이선(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 ▲사물인터넷(IoT)센서 및 구동기 기초 ▲라즈베리파이(교육용 초소형 컴퓨터) 제어 및 활용 ▲인공지능 활용 실습 ▲아이디어 개발 프로세스 멘토링 ▲IoT 디

바이스 팀프로젝트 제작 등의 융합기술 수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인 기술 인재 육성과 진로체험 등의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지능형 융합기술 세미나를 개최해 융합기술 기반 신산업 관련 기술 사례 등 도내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기술 교류를 통한 소통·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최서용 도 과학기술과장은 "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소는 용기원 내 첨단기술분야 연구자들의 연구경험 및 딥테크(Deep-tech) 기술력을 활용한 창의기술 상용화 공간"이라며 "용기원의 시제품 제작소가 도내 기업과 (예비)창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메이커 스페이스(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이디어, 장비, 지식을 공유하면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곳)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양평군, 유튜브로 만나는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인문학 강연 '문학마실',
시낭송 음악회 '첫사랑 콘서트' 등

경기 양평군의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은 유튜브채널을 통해 인문학 강연 시리즈 '문학마실'을 비롯해 소나기마을 전시와 교육 및 다양한 행사들과 유익한 내용의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있다.

특히 전 경희대 국문과 교수이자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중희 총장의 '문학마실'은 문학과 역사, 예술의 장르를 넘나드는 재미있는 인문학 강연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통 속에 핀 명작의 예술혼' 시리즈에서는 윤동주, 이상 등 우리 문학사의 주요 문인들과 '모비딕'의 허먼 멜빌, '폭풍의 언덕'의 에밀리 브론테 등 세계 문호들의 유명한 에피소드 혹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다루어 조회수 5만을 기록하는 등 구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방문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인 '징검다리 체험교실', '이야기 숨바꼭질', '인문학 크리에이터 총총대', 지역민들과 함께 문학과 음악을 나누는 행사 '첫사랑 콘서트'와 '수숫단 음악회'의 영상들을 기존 맛보기 홍보 영상으로 짧게 올리던 것에서 나아가,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맞아 온라인으로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감상용 전체 영상들을 올리고 있다.

또한 황순원 선생의 소설을 낭독영상으로 접할 수 있는 '낭독전집 프로젝트'와 다수의 기획전시 영상들을 만날 수 있다.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마을은 유튜브에서 '소나기마을', '문학마실' 검색으로 볼 수 있다. 소나기마을 입장료는 양평군민은 무료이며,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은 휴관 한다.

이성윤/기자

고양시

사각과

정의로운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코로나,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 민주시민센터 2021 정책토론회' 개최

17일, 화성시평생학습관에서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시민 등 20여 명 참석

화성시 민주시민센터가 17일 화성시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2021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기초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수립 방향 및 정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발제자와 주요 패널 및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 만 현장에 참석했으며, 구글 화상회의와 유튜브로 생중계돼 시민들과 공유됐다.

우선 발제를 맡은 한신대 김민환

교수는 '화성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각 거점마다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의 네트워킹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주명 화성시 민주시민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서원희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오세욱 화성민주넷 공동대표, 홍석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교육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토론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방법의 체계화 ▲정책의 유연화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길 바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설립된 '화성시 민주시민센터'는 한신대학교가 수탁운영을 맡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네트워크 구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등을 추진 중이다.

양시현기자



capital area
수도권 II

문화매일 5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광주시, 문화의 새로운 쓸모
N개의 힐링'다시
예술이다' 개최

광주시와 컬처임팩트는 오는 29일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지원 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문화의 새로운 쓸모 'N개의 힐링'의 메인 프로그램인 '다시 예술이다'의 마지막 공연을 선보인다.

N개의 힐링 '다시 예술이다'는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문화예술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광주시민들로 구성된 생활예술동호인들이 다시 문화예술을 배우고 지역 아티스트와 함께 창작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회복하고 힐링할 수 있는 자리다.

어쿠스틱 듀오 밴드 '아웃오브캠퍼스'가 연말에 잘 어울리는 서정적이면서 감미로운 무대를 선보이고 지역 아티스트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이즈'가 요즘 제일 핫한 콘텐츠를 결합한 공연을 준비했다.

또한, '다시 예술이다' 공연을 위해 모인 광주시민들로 구성된 생활예술동호인들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12주 동안 연습한 결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줌(ZOOM) 화상회의 앱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콘서트로 관객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 신청을 통해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을 끝까지 관람한 모든 분들에게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증정한다.

박강호기자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17일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에서 유공 표창

전달식·특강·토크콘서트 등

수원시가 올 한 해 동안 협의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위원들을 표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수원시는 17일 오후 2시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 니스홀 6층에서 '위드코로나 시대, 변화의 흐름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2021년 수원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열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날 행사는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유공자 표창 및 시·동 협의체 성과 보고', 전문가 특강(2개)', '토크콘서트'로 진행됐다.

먼저 수원시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시·동 협의체 위원·공직자 및 우수동 표창장을 전달했다. 시와 동 협의체별로 각각 7명씩 총 14명과 6개동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종합평가로 11개동이 표창을 받았다.

이어 컨퍼런스에서는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이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해 특강을 펼쳤다.

또 김이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자치분권에 따른 지역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치분권과 복지분권 실현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원과 강연자들, 시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함께 패널로 참여해 '대 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변화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해진 이웃 등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늘고 있다"며 "지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이웃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협의체 위원들이 앞으로도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영기자

박승원 광명시장,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개소 축하

17일,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개소식 개최

광명시는 지난달 29일 업무를 시작한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17일 개청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양기대 국회의원, 일직동 유관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일직동 행정복지센터는 광명역세권 주변에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소하2동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소하2동 분동으로 신설됐다.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명칭은 주민 설명회와 설문조사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했다.

일직동 행정복지센터는 광명시

양지로 17, 유-플래닛 6층에 있으며 지상 1개 층, 연면적 430.18㎡(약 130평) 규모로 민원실, 주민자치실, 다목적실, 상담실 등이 있다.

관할구역은 광명역세권 5개 아파트 단지 및 오피스텔, 자경마을·양지마을·호봉골·구석말로 20동 127반을 관리한다.

광명시 19번째 행정동 신설을 축하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행정복지센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일직동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서로 연대하고 화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변중 일직동장은 "신청사가 개청되기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주민들 덕분에 멋진 청사가 완공될 수 있었다"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새로운_자치분권의_시작
#광고_경기도의회_신청사



용인시 처인구 장학회, 장학증서 및 2억여원 후원품 전달

-황선인 회장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밝히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 서겠다”-



용인시 처인구 장학회(회장 황선인)는 17일 페이지웨딩홀에서 '제7회 처인구 장학회 정기총회 및 장학증서·후원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섭 국기원장, 주상봉 인재육성재단 전 이사장, 이의도 농협중앙회 용인지부장 등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용인시 처인구 장학회는 남서울대 이동휘를 비롯한 10명의 학생에게 각 장학금 30만 원과 부상으로 ▲KF94 마스크 ▲보스틴백 ▲쌀 4kg(2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셀카봉 등을 전달했다.

이어서 장학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이순복 자문위원, 이세희 자문위원, 주영철 부회장, 심광현 부회장에 공로패를 수여하고, 처인구청에 ▲보스틴백 500개 ▲셀카봉 1만 개, 신체장애인복지회에 ▲타올 100장 ▲보스틴백 100개 ▲셀카봉 1만 개, 경기도 장애인복지회에 ▲타올 100

장 ▲보스틴백 100개 ▲셀카봉 500개, 용인가수협회에 보스틴백 50개 ▲사발면 600개, 사회복지시설 등에 총 2억여 원의 성금과 물품이 전달됐다.

용인시 처인구 장학회는 매년 4차례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장학금 수여식과 물품 전달을 8년간 진행해 오고 있다.

황선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랜 기간 봉사를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실로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밝히고 있다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봉사 철학을 밝혔다.

또 황회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과 물품을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용인시 처인구 장학회는 앞으로도 어두운 곳을 비추는 봉사의 등불이 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조혜영/기자

부천시, 직원 혁신마인드 높인다

부천시는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정부혁신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직원들의 혁신마인드를 제고하고자 지난 16일 정부혁신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제2기 정부혁신 강사단으로 활동 중인 은평구청 소속 오정석 팀장과 울주군청 소속 공해열 팀장이 각각 릴레이 특강을 이어갔다.

오정석 강사는 스마트시티 경진대회 대상 및 공공서비스 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정부를 위한 디지털 추진 우수사례 및 사회변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고, 공해열 강사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상 수상 등을 바탕으로 AI 안전 네비게이션 등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강의했다.

부천시는 금년에 처음으로 정부혁신 교육을 개설하여 전 직원이 모든 행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와 같은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혁신교육을 실시했다고 추진배경을 알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혁신교육을 강화하여, 부천시 공직자 모두가 혁신 마인드를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하남시, '2021년 지역방위협의회 워크숍' 개최

하남시는 지난 15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2021년 하남시 지역방위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상호 시장, 최종윤 국회의원, 방미숙 하남시의회의장과 하남시 지역방위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지역방위협의회장 이취임식과 공로 위원에 대한 표창 수여, 안보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취임식을 통해 최은기 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박선규 신임 회장이 취임해 앞으로 2년 동안 하남시 지역방위협의회를 이끌게 된다.

신임 박선규 회장은 “방위협의회는 국가안보를 위해 각자 지역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안보와 위기 상황

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임기 동안 지역방위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상호 시장은 “전통적 안보와 더불어 포괄적 안보가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 재난위기 안보의식이 결여된다면 하남의 지역방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 시에는 지역방위의 법적 근거는 있지만 명문화가 돼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지원근거와 각 동의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체계를 세워 하남시 지역방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지역방위협의회는 2011년 출범해 하남지역 11개 동에서 지역 안보를 위해 총 261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박강호/기자



평택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천을 위한 인력양성과정 '2021년 커뮤니티케어 리더스 아카데미'수료식 성료

(재)평택복지재단은 평택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천을 위한 인력양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커뮤니티케어 리더스 아카데미'를 12월 16일 평생복지타운 밀레니엄홀(14:00)에서 수료식을 진행했다.

김준경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광미연 위원장, 이해금 부위원장 등 약 40여명의 내·외빈 및 교육생이 참석하였으며,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베트남 전통무용 자조모임'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교육생 대표 수료증 수여 ▲우수 교육생·단체 표창장 수여 ▲평택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핵심방향과 가치 교육 ▲교육 소감문 발표 ▲기념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의 커뮤니티케어 조례를 발의한 평택시의회 광미연 복지환경위원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평택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한다. 항상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전하였으며, 이해금 복지환경 부위원장은 “1기 교육생들의 수료를 시작으로 2기, 3기 등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돌봄 활동을 한다면 어르신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수료증 수여와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교육생과

단체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교육생을 대표하여 원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기숙 위원이 수료증을 받았으며, 우수 교육생 표창장은 지산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최영순 위원, 세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중순 위원, 서정동 북부노인복지관 후원이사회 조민재 이사, 평생생 사내재가방문요양센터 박미진 센터장 우수단체 표창은 지산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서정동 북부노인복지관, 비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상했다.

이어서 진행된 커뮤니티케어 리더스 아카데미 1기 수료생 소감문 발표 내용으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독거 노인, 장애인 등 우리의 '이웃'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과 복지서비스의 징검다리 역할로서의 책임감을 느꼈다.”며 “권역별 주거, 식사·건강지원, 정보제공 등을 위한 돌봄 인프라 구축 및 자원확보에 대한 중요성과 실제 이용자 발굴과 사례과정 진행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주민자치회, 명예사회복지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44명의 수료생들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서비스제공자의 윤리강령 및 이용자의 권리옹호 기법 ▲지역사회복지 문제에 대

한 정보수집과 자원 강화기법 ▲보건·의료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 (Community Care) ▲영성으로 떠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우수기관'벤치마킹 ▲Mapping(도표화) 실습 등 커뮤니티케어 리더로서 갖춰야 할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했다.

김준경 이사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정부의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평택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구축하여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긍정적인 정책”이며 또한 “2025년까지 지역사회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확립과 민관의 권역별 협력체계를 통해 주민 중심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때 케어에방 사업의 핵심인 자원개발을 위한 중심 활동 담당자인 '커뮤니티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감동양주
신성장·새지평

함께하는 감동 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Yangju
양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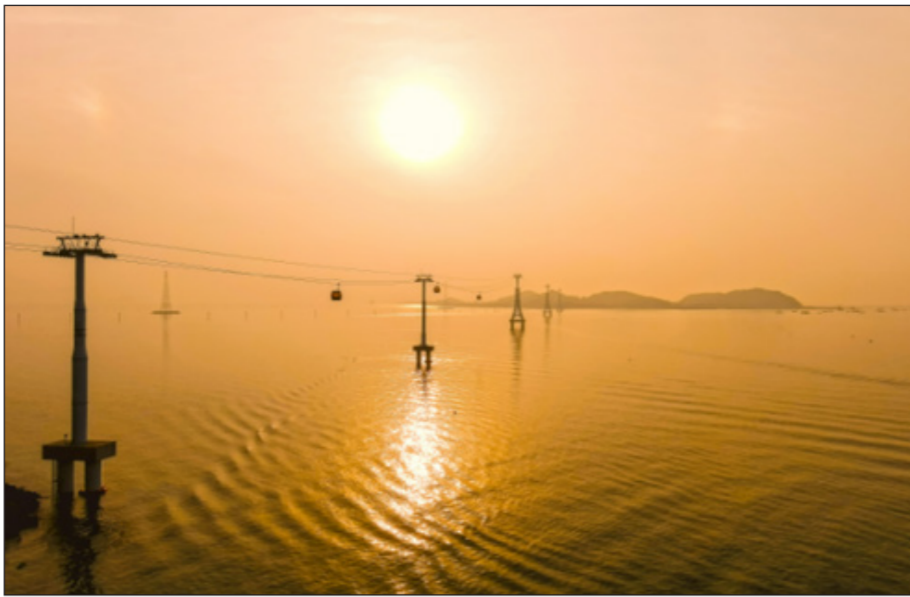
화성시의회, '서해랑 제부도해상케이블카' 현장점검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과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김경희, 김도근, 신미숙 등시의원들은 16일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서해랑 제부도해상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하고 시설 등을 점검했다.

서해랑 제부도해상케이블카는 서신면 장외리(전곡항 고령산)에서 제부도(제부도 입구) 2.12km 해상구간을 자동순환식 곤돌라로 운행할 예정이며, 화성시는 지난 12.1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12.23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담당부서에 의하면 한 번에 최대 10명까지 탑승 가능한 캐빈 41대로 시간당 최대 1,500명을 수송할 수 있으며 제부도 내 통학 아동은 무료, 화성시민은 이용요금의 30% 할인 혜택과 서신면 제부리, 전곡리 주민들은 이용요금의 50%할인 혜택을 받는다.

원유민 의장과 시의원들은 담당자들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특히 안전문제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 운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주차장, 교통문제, 편의시설 등을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담당부서에 요청했다.

현장방문을 마치고 원유민 의장은 "해상구간으로는 국내 최장인 해상케이블카가 화성에 생기게 되어 자랑스럽다. 화성시민 뿐 아니라 수도

권의 많은 시민들이 서해안의 낙조와 전곡항을 바라보며 힐링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는 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한파 대비 취약계층 안전 점검'에 나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17일) 오전 10시 장애인 거주시설 신에너지활원을 점검하고,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주거환경을 살피고 관련 대책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먼저 부산진구 초읍동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신에너지활원을 방문하여 종사자와 입소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살펴보고 겨울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게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주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감사사를 표하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어 재활원 인근에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한파 대비 예로사항을 듣고, 수도권 동파방지를 위해 노후계량기

보호통과 보온재를 교체하는 등 안전 점검도 했다.

박형준 시장은 "동절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들의 겨울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며, 여기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도 더욱 걱정된다"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더욱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저소득층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강화,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지원(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난방용품 지원(재해구호기금),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등을 포함한 '동절기 민생안전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남궁영기/기자



문화매일 7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거제시, 코로나 재택치료 대응 의료기관 점검

거제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12월에만 108명으로 증가하면서 늘어난 재택치료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거제시 박항기 부시장은 지난 15일 우리시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대우병원과 거북백병원을 방문해 운영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우리지역 코로나19 재택치료 중인 자는 44명이다.

시는 그간 동의에 의해 진행됐던 재택치료가 모든 확진자를 대상으로 확대 변경된 만큼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라고 밝혔다.

시는 재택치료 관리조직을 부시장을 단장으로 재택치료추진단을 2개반 ▲건강관리반(6명) ▲격리관리반(8명) 15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우리시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는 거북백병원, 대우병원을, 협력약국으로는 우당약국, 정다온약국, 거제프라자약국을 지정했다.

재택치료는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보호구 등 제공되는 건강관리키트를 통해 본인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건강관리 앱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 재택치료 관리팀은 건강관리 앱과 유선상으로 일 2~3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건강관리 앱의 '응급 콜'을 누르거나 24시간 가동되는 비상연락망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경남도청으로부터 병상을 배정받은 뒤 119(평일 야간·휴일)와 보건소(평일 주간)를 통한 응급이송이 이뤄진다.

일반적인 재택치료 기간은 7일 치료, 3일 자가격리 총 10일이다. 다만, 증상 여부와 의료진 판단 하에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

시는 재택치료 기간 전담공무원을 매칭해 자가격리보다 엄격한 격리관리를 진행할 예정으로, 격리자는 일탈한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 착용 또는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박항기 부시장은 두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심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므로 안심하고 집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여건과 24시간 응급상황 및 이송 대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강영훈/기자



거창군, 2021년 동절기 대비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거창군은 2021년 동절기를 대비하여 거창군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지난 15일 대형 건축공사장 2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재난·재해 대비하기 위해 사전 공사 중인 대형 건축공사장의 위해 요소를 조기 발견하고, 대비 태세 완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점검 사항으로는 지반타파기에 따른 인접 구조물 균열 및 침하 발생 여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여부, 가설물타일 및 안내관 결손 여부 등 사업시행 중 순간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업장 외 인접한 공공시설 및 민간 건축물 등의 피해 발생 정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크랙모니터(균열 점검)를 시공사에



전달하여 인접 시설물 관리에 활용하도록 현장 권고했다.

김유복 단장은 "사고는 예고되지 않고 한순간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우리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내 시행하는 많은 공사장에서도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안전관리자문단은 2005년 관내 거주하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국가안전대진단, 지역축제 등 분야별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장병철/기자

군산시 황철호 부시장 시립도서관, 근대역사박물관등 공공시설 현장 점검 실시

군산시는 황철호 부시장이 17일 근대역사박물관과 시립도서관을 방문해 방역패스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기본수칙 준수 캠페인 등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부터 적용되는 특별방역대책 발표에 따라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도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추가돼 각 시설들의 방역패스 준비사항 점검 등을 위해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설물과 방역수칙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기본방역수칙 준수 홍보물 전달과 캠페인도 전개했다.

황 부시장은 "전북에도 우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유입되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의 방역협조가 필요한 시기다"면서 "특히, 우선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방역수칙을 지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8일부터 새로운 비상조치 강화방안이 실시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운영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현태/기자

곡성군, 농기계 수명 겨울철 관리가 좌우 점검 필수

동절기를 맞아 곡성군이 고장난 임대 농기계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 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는 활용빈도가 높은 74종 260대를 수리 및 정비한다. 트랙터, 로타레이더, 농용굴삭기, 땅속작물수확기, 동력운반차 등과 겨울철 사용되는 퇴비 살포기, 원관거기, 콩 정선기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또한 센터는 정비기간 중 센터를 찾는 농업인에게 겨울철 농기계 보관방법과 관리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농기계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할 때는 구석 구석을 깨끗하게 닦고 기본적인 정

비 점검을 해주어야 한다. 녹슬거나 부식되기 쉬운 부분에는 오일이나 그리스를 도포하고, 경유 연료와 부동액은 가득 채워두는 것이 좋다. 반면 휘발유는 가스발생 방지를 위해 완전히 비워야 한다. 타이어 공기압은 표준보다 조금 높게 주입 후 고임목을 사용해 평지에 주차해 두어야 한다. 배터리는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 (-) 단자를 떼어두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관리가 소홀하면 농기계 수명이 짧아지고, 잔고장이 발생한다.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해 임대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최상홍/기자

익산시의회, 시정질문 통해 주요 현안 집중점검

익산시의회가 제23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항 및 주요 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종대 의원의 질문을 시작으로 총 8명의 의원들은 시정에 대한 예리한 질문들을 이어갔다. 박종대 의원은 익산세무서 이전에 따른 주변 상권 붕괴와 남중동 원도심의 슬럼화 방지를 위한 익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노후화되고 보수가 시급한 익산유스호스텔의 시설 정비를 위한 대책방안과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조규대 의원은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리나라 최초 저수지인 익산 황등제의 적극적인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황등풍물시장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순주 의원은 익산시 민원콜센터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시 직영으로 전환 검토를 요청하고, 언론관련 예산은 홍보부서에서 총괄 편성하여야 함에도 각 부서에서 편성함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오임선 의원은 보석어드벤처 사업과 관련된 예산 편성의 문제점, 준공

지연 사유 및 추가 공사 내용, 시설 안전 계획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인구 유입에서 인구보전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상욱 의원은 청년들이 행복한 익산을 위해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요청하고, 익산청년센터가 지역 청년들의 대표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규모와 사업영역의 확대, 청년센터 관리조례 제정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은 영등2동, 부송동 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빌딩 입차활용, 임대형 공영주차장 조성 등의 대안 제시를 촉구하고, 범평에 근거하여 공유재산관리 절차가 이뤄져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김수연 의원은 익산시 중년 남성의 우울증 및 자살율이 높은 현상에 대한 익산시의 대책 마련과 음식섭취가 중요한 당뇨·아토피 질환자를 위한 익산시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임형택 의원은 신청사 건립비용 재정계획, LH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일정 및 구)익산경찰서 공유지 개발사업 진행에 대해 질의하고, 모현 우남아파트에 대한 향후 대책이 필요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선수/기자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앞두고 추진사항 점검

다음 달 27일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도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16일 도청에서 도 노동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기획조정실 등 관련 실국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에 대비해 도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담조직 설치와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중대재해 예방은 법정부적 국정 목표이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경기도에서도 중대재해 예방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노동이 존중받고, 시민이 안전한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중대산업재해 분야는 노동국, 중대시민재해 분야는 안전관리실이 중심이 돼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국은 지난 13일부터 중대산업재해 예방 전담조직(TF)을, 안전관리실은 지난달 29일부터 중대시민재해 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 중이다.

노동국 중대산업재해 예방 TF팀에서는 소속 사업장별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1월 중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전관리실 중대시민재해 예방 TF팀에서는 도내 3만1,965개 시설에 대해 유해 위험요소, 재해발생 시 대응조치 등 유형

별 종합계획을 각각 수립해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는 도 여건에 맞는 사업장·시설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법률·보건·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병행 연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

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공이용시설·공공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에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조혜영/기자





area

영남 I

8

문화매일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달성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 선정

달성군이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에서 달성군 논공읍 남2리「多함께 사는 우리가 남2家」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2022년 도시재생예비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 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을(3~4개 내외) 발굴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며, 본 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뉴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11월 1차 서류 평가,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12월 달성군을 포함한 105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한편, 달성군과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번 공모를 위해 사업대상지 남2리 주민들의 대상으로「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이번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다함께 사는 우리가 남2家」은 1억 4,000만원 규모로 국비 3,500만원이 투입된다.

또한, 달성군과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대상지에 ▲ 주민 역량 강화, 주민 공동체 공간 조성 ▲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 ▲ 북동초등학교 주변 경관 개선 사업, 마을 홍보 영상 등 마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2022년 연내에 추진하게 된다.

김문오 군수는 “주민과 달성군이 협력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단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혁/기자

포항시, 한해동안 건축디자인 분야에 힘쓴 시정 유공자에게 표창 수여

포항시는 17일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건축디자인 분야 시정 추진에 힘쓴 유공자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유공자 표창은 건축문화상 수상자 6명, 건축정책 및 건축안전 분야에 기여한 공이 큰 강주석 대한건축사협회 국장 등 8명, 건축행정 건실화에 창의적인 자세로 임한 남·북구청 공무원 7명,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디자인분야에 적극적으로 헌신한 '디자인 이미지' 남수용 대표 등 5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역의 건축문화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찾아 시상하는 '포항시 건축문화상' 수상작 3점에 대해 시상을 함께 진행했는데, 건축주에게는 동관,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상패를 시상했다.

최우수상에는 ㈜이든건축사사무소(강진호 건축사)의 '북구 흥해읍 학천리 316-3번지 근린생활시설'이,



우수상에는 ㈜건축사사무소A3(안진홍 건축사)의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759-4 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이, 장려상에는 ㈜이든건축사사무소(강진호 건축사)의 '남구 대잠동 909-16번지 근린생활시설'이 선정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올 한 해 동안

건축디자인분야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주신 유공자 여러분께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노이/기자

환동해산·,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성과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재)환동해산연연구원은 1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2021년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환동해산연연구원이 주관한 행사로 올해 경북지역 해양수산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성과를 발표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전시와 시식품평회를 동시에 가졌다. 또한 우수 성과기업으로 선정된 ㈜천연식품, ㈜성진홀푸드, ㈜거창수산 3개사에 대한 도시사표창도 함께 전달하였다.

이와 함께 수산물 상생발전지원사업과 해양수산벤처창업 일자리지원사업의 성과발표도 진행이 되었고,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에 대한 그간의 성과분석에 대한 용역 최종 발표를 통해 향후 사업계획과 지원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는 보고도 진행되었다.

이날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차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수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좋은 성과를 창출한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확대를 통해 많은 지역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 주요 성과로는 지역 수산공공중소기업 총 51개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신규창업기업 5개사 발굴지원, 신규일자리 창출 437명, 매출증대 132억원, 수출 39억원의 증대를 창출하는 등 지역 해양수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강원 연구원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해양수산 중소기업에 도움일 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창출된 기업들의 성과인 만큼, 긍정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좀더 지역기업의 현장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정말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반영해서 지역 해양수산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봉금/기자

경산시,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으로 가족친화 도시로~

경산시는 16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을 부여받았다.

경산시가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받은 것은 2016년이 최초이며, 이번 재인증에서는 경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검진비 지원, 임신·출산지원 배려 정책,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성가족부 소속 평가팀장이 직접 경산시장과 인터뷰를 한 결과에 따라 가족친화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10

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사업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올해 9개 기업을 가족친화 기업으로 신규 선정하여, 관내 가족친화기업이 20개에서 29개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며 기관과 기업이 더불어 나아가는 가족친화경산시로 거듭나고 있다.

가족친화기업이 되면 가족친화인증마크가 부여되어 인증표시 활용을 통한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출입국 우대·대출금리우대·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경산세일

센터에서는 새일여성인턴과 기업환경개선, 양성평등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으로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고 경영자로서 최선의 지원을 하겠으며, 기업에서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조성, 여성인력 적극채용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에 적극 노력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성혁/기자

경주시, '2021년 경주시 국제무역 상담회' 개최

지역해외수출업체 48곳, 미국일본 등 9개국서 38개사 해외바이어들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돼

경주시와 경북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지난 14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코로나19로 발이 묶인 경북도 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를 찾기 위해 '2021 경주시 국제무역 상담회'를 열었다.

시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바이어를 직접 초대해 수출상담회를 진행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언택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담회에는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식품·화장품·기계·생활소비재 등 경쟁력 있는 수출 제품을 생산하는 도내 48개 업체가 참여했다.

해외바이어는 미국·일본·터키·인도·태국·미얀마·베트남·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 등 9개국에서 38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수출상담은 상담회장 내 설치된 부스 등을 통해 기업과 해외바이어, 통역자 등 3자 간 실시간 원격 화상 상담으로 진행됐다.

일부 제품은 사전에 현지로 발송돼 해외 바이어들이 미리 제품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상담회 결과 농업회사법인 ㈜상북명품원이 미국의 윌타리USA 및 인도네시아의 세베와, ㈜현우가 스자트라 막무르 아바디 기업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가 나왔다.

현장을 방문한 김호진 경주시 부시장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수출 중소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홍보물 제작 지원, 수출포장 및 운송 지원, 해외규격 인증 지원, 수출용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상길/기자

안동시, (재)한국햄프산업진흥원(KHIPA) 발기인 총회가 열렸다

안동시는 (재)한국햄프산업진흥원(KHIPA)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가 12월 17일 오후 4시 안동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경북산업융합프규제자유특구사업 선정 기업 대표, 햄프관련 학계 교수, 전문가,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밝혔다.

KHIPA는 정부 규제에 막힌 햄프(대마)를 활용하여 품종개발 육성에서부터 CBD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전·후방산업 육성으로 파워 브랜드 개발에 통합적(Total-Solution)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조기에 햄프산업의 안정화를 뒷받침하게 된다.

발기인 총회는 대마의 분향인 안동이 경북산업융합프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만큼 한국햄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안동시 안동상공회의소 회장이 산학연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립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발기인은 안동시 안동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하여, 권순협 안동농협조합장, 김영훈 ㈜파미노젠 회장, 노중균 (사)한국대마산업협회장, 최성연 ㈜광진기업 부설 연구소장, 권미진 ㈜애그유니 대표이사, 권기석 안동대학교(생명과학대학), 홍종기 경희대학교(약학대학) 교수, 조만수 국민대학교 교수, 피재호 단국대학교 교수, 김문년 계명대학교(약학대학) 객원교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날 발기인 총회 공동의장은 권순협 안동농협조합장과 김영훈 (㈜파

미노젠 회장이 선임되었고, 내년도 창립 총회를 통해 이동필 前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로 수락했다. 이 전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제 제가 설 자리가 여기라는 사명과 명을 받고 한국햄프산업진흥원은 앞으로 국가 햄프 전략산업을 토대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데 중심으로 미래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시켜 가는데 선두에 서겠다”고 말했다.

발기인 대표인 이동시 회장은 “KHIPA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해외 전문가들과도 교류하여 한국햄프 세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혀 향후 KHIPA가 한국대마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덕자/기자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

우리 울릉도

코로나 극복, 울릉도·독도와 함께하는 가을여행

슬기로운 거리유지

천혜의 자연과 민족의 혼이 살아 숨쉬는 곳! 울릉도·독도로 오세요.

울릉군 ULLEUNG-GUN

김해시, 한파·대설 피해예방 총력대응

김해시가 겨울철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유관기관 및 부서간, 읍면동간 협업기능을 강화하고 한 발 앞선 상황판단과 대응, 현장중심의 사전점검 및 복구지원 등을 위해 한파·대설 대비 태스크 포스(T/F)팀을 연중 도시과장을 총괄 팀장으로 하여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 하고,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및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제설삽날 및 살포기 등 제설기 21개, 중소형 차량을 포함한 제설차량 125대, 마을제설반 등 제설인력 711명, 제설삽 1,520개 확보하여 즉시 동원 및 사용가능토록 하였으며, 친환경제설제 557.2톤, 모래 130㎥을 확보하여 현장에 설치된 제설함 437개소에 일부 비치하고 생립 및 대형동 제설전지까지도 보관하고 있다.대설 시 교통두절예상지역을 25개 지정하여 전담인력과 전담제설장비 즉시투입 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역 2개소에 자동 제설·제빙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한파저감 시설 773개소와 한파쉼터 33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파에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생활지도사 192명이 안부전화로 매일 2,000여명에게 실시하여 겨울철 건강관리, 한파·대설 행동요령 등을 챙기고 있다.

지난 11월 30일부터는 겨울철 한파·대설에 대비한 이행실태를 안전 도시과를 중심으로 10일간 실시하여 제설장비 작동상태 및 부착소요시간, 제설장비 및 제설인력 동원, 제설자재 보관상태, 교통두절예상지역 관리상태, 피해예상 축산시설 및 수산시설 대비사항 적정여부, 민간단체와 협업체계 유지여부, 마을방송 작동 등 홍보사항, 보호야동 및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 난방용품지원 등 대설·한파 대비한 종합적인 사항을 담당 부서별 자체 점검하여 미비사항을 즉시 보완하고 대책을 강



구하였다. 그리고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한 시민행동요령」과 「내집 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보도, 이면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내린 눈은 우리가 치웁시다.」라는 전단지 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읍면동 및 민원실에 배부하여 홍보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 배너창 및 재난문자전광판 7개소, 재난마을방송 288개소, 재난정보시스템 58개소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따뜻한 핫팩을 배부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김해시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과 실내 적정온도 유지, 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외출 시는 따뜻한 옷 입기, 저체온증 위험군이나 동상 위험군은 더욱더 조심해야 하며, 한랭질환 증상 시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고 따뜻한 장소로 이동할 것으로 당부했으며, 한파·대설 대비한 이행실태를 매달 점검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부산시 박형준 시장, “그린스마트 부산 비전에 맞게 신산업 기반 구축 위해 투자유치에 총력”

부산시, 역대 최대규모인

3조 6천억원 투자유치

성과 기록

부산시는 올 한 해 동안 국내·외 기업 23개사, 총투자금액 2조 1천억원을 유치하고, 오늘 서부산권에 맥쿼리캐피탈코리아(株), ㈜부산도시가스 와 1조 5천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투자협약서를 체결 체결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인 3조 6천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3년간의 기업 유치 성과를 비교해보면 올해 성과가 더욱 두드러진다. 코로나19 장기화, 글로벌 경기불황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쿠방, BGF리테일, LX인타내셔널 등 글로벌 물류 대기업 3개사를 포함하여 제조업, 첨단지식서비스 산업, 바이오·의료 등 다양한 업종과 투자유치에 양과 질을 모두 충족하였다.

이러한 기업들의 잇따른 부산행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스마트물류의

급성장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 등을 통해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도 한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의 부산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이례적으로 박형준 시장이 직접 대기업을 방문하여 세일즈활동을 전개했고, 비상경제대책 회의와 두 차례의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겸한 기업초청 간담회 등 특단의 유치전략 마련에 공을 들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투자협약 체결 이후 기업들의 투자이행을 위한 홍보와 노력도 전례 없이 속도감을 보인다.

먼저, 정부로부터 신성장동력산업 인증을 받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머는 신성장동력 산업군 역대 최대규모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지난 8월 외제우미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강서구 명지 R&D지구에 오는 21일 부산 IDC (Innovative Discover Center) 착공식을 앞두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명지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도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지난 7월 국제학교(K-12)건립을 위한 부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상생협약을 체결

하고, 영국 본교 로얄러셀스쿨과 순조로운 협상을 거쳐 건축설계를 준비하고 있다.

시는 향후 부산에 투자한 기업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도심 내 공유재산 활용, 주요 입지 인센티브 제공, 연구·개발(R&D) 인력 등 인재 유치를 위한 교육훈련비 지급 등 투자 지원제도 관련 조례와 규칙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단순히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대기업과의 연계 협력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산학협력으로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힘써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는 향후 에코델타시티 개발, 가덕도 신공항 건설, 2030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등으로 이어지면서 최고조에 달할 것이며, 청년인력 유출 방지와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영명/기자



문화매일 9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2021년 밀양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열려

밀양시는 17일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한 해 동안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자원봉사를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1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숭선수범한 자원봉사자를 포상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식전 축하공연, 봉사활동 동영상 시청, 자원봉사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상자는 총 38명으로 도시자상 5명, 하반기 자원봉사자 3명, 시장상 16명, 시의장상 2명, 국회의원상 3명 등으로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며 자원봉사의 가치를 드높인 유공자들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이명숙 밀양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기에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밀양을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자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희망백신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 덕분에 밀양의 나눔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로 하나 되는 밀양을 만들어 주시고, 지역에 대한 사랑으로 나눔과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남영명/기자

진주시, '철암동 자전거 대여소' 무료화해 시민 품으로

진주시 철암동 유료 자전거대여소가 공영 무료 대여소로 바뀌어 다시 문을 연다.

강남로 188 남강 둔치에 위치한 철암동 자전거대여소는 지난 2006년 민간사업자가 유료대여소로 운영을 시작한 이후 15년 5개월만에 무료 대여소로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시는 자전거 70여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안전모, 안전보호대 등을 비치해 개소 준비를 마쳤다.

대여소는 오는 12월 21일부터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하절기(8월~10월)에는 오전 8시~저녁 7시, 동절기(11월~2월)에는 오전 9시~오후 5시까지이며 신청, 설날·추석 등 명절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맡기면 누구나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고 진주시민뿐만 아니라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진주시는 상대와 평가 지역에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 해 1만 7000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만만 시민의 편의 시설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조규일 진주시장은 개소를 앞둔 17일 오전 철암동 자전거대여소를 방문하여 대여소 시설과 운영을 점검했다.

조규일 시장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기며 계절과 자연이 주는 멋진 풍경을 만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진주시를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힐링의 도시, 친환경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유의사항은?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의사항 안내문

제작·배부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구축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와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바람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창원에서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아파트 단지 내 소유자 모임이 활발하고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조합원 모집도 진행되고 있어 그동안 잠잠했던 구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부동산 과열에 따른 주택가격상승에 편승하여 과도한 계획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게 된다면 향후 부동산 가격 조정 시기에는 추진이 어렵고, 그동안 사용한 비용이 부메랑이 되어 조합원 간의 갈등 요인으로 분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택정책과는 “아파트 구분 소유자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 배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을 통한 중증 일반분양분

(증가 세대)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으며, 조합원 모집 시 제시하는 계획도면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불명확, 건축비(인건비, 자재비 등) 상승 등으로 분담금 예측이 어려우며,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은 세대의 물건은 매수해야 하므로 반대 소유자 물건 매입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최재한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특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감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관심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소유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진정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리모델링이 무엇인지부터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유의사항 안내문은 각 읍·면·동 및 시청·구청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분야별포털→부동산→부동산 정책)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남영명/기자

함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함양 산양삼 제품

홍콩·싱가포르지역

수출시장 개척

함양군은 17일 상림공원 인근 향노화관 1층 회의실에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행사를 주최하는 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과 관내 산양삼 가공품 및 농식품 10개 업체가 홍콩과 싱가포르 지역 바이어와의 온라인 수출 상담을 위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홍콩, 싱가포르 지역 등 해외시장에 산양삼제품 및 우수 농식품을 홍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시장 개척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수출 전략을 모색하고자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업체별 1:1 수출상담으로 진행하였다.

추진단은 사전에 참가업체의 상담 제품 정보와 샘플을 해외 현지에 보내 적극상담 바이어를 발굴하였고, 그 결과 홍콩지역 11개, 싱가포



르 4개 등 모두 15개 해외바이어가 행사에 참여하여 30여개의 상담품목으로 업체 간 활발한 수출상담이 이루어졌다.

이 날 서춘수 함양군수는 이종석 홍콩 한인상공인회 부회장과 영상통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수출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번 온라인 상담회를 통해 함양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들이 수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

다”라고 말했으며 행사에 참석한 업체를 격려했다.

한편, 함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산양삼 항노화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적인 추진주체 육성 및 산양삼의 연구개발 등 내적 역량의 축적을 통해 ‘함양 산양삼의 고도화 및 세계화 달성’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장병철/기자

인권교육 실천교사단, 맞춤형 인권수업 이야기 풍성

경상남도교육청은 12월 17일 별관 공강홀에서 인권교육 실천교사단과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실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인권교육 실천교사단의 사례집 소개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초 ‘인권교육 실천교사단 1기’를 공모해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는 동력을 마련하고 교육공공체의 인권감수성 증진과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했다.

인권교육에 관심 있는 도내 초·중·고·특수 교사 65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1년간의 실천 이야기를 모아 ‘특목 인권수업’ 사례집을 발간했다.

‘특목, 인권수업’은 인권교육 실천교사단의 실천사례를 11개 팀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학교와 학급의 맞춤형 인권교육 프로젝트를 실천한 사례부터 ‘학급살이’ 속에서 인권 친화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생활교육 사례까지 교실 속 이야기를 그대로 나눈다.

당일 사례 발표자 중 내용초 최은지 교사는 국어, 도덕, 미술, 음악 등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재구성하여 스내가 가진 인권 알기 △우리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살펴보기 △학급규칙 만들기 △평화감수성 기르기

및 지구약수터(지구를 구하는 약속수호천사 배움터) 프로젝트를 실천했다.

장평호 조명자 교사는 ‘거제인권한뼘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거제 포로수용소부터 김영산 전 대통령 생가, 조선소 등 거제 지역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쉽고 재미있는 인권수업을 모색해 보려고 했다. 거제 지역에 대한 인권 이해, 인권보장사례 탐구, 거제인권한뼘지도 제작 등으로서 실천의지를 다진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양산교육지원청 이하은 특수교사는 ‘U.D.L.(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학습에서 보편적 설계) 기반 지체장애이해교육’을 소개했다. 인권교육의 방법부터 한글 미해독, 다문화가정, 장애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설계를 고려하여 인권에 대한, 인권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인권을 통한 교육’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었다.

특히, 고성중앙고 문정인 교사는 ‘비판적 읽기 및 삶을 바꾸는 글쓰기’를 통한 인권감수성 깨우기’라는 주제로 국어 교과와 본질을 살리면서 학생이 인권을 알고 존중하는 태도를 내면화하기 위해 읽기·쓰기와 접목하였다.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실존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학교문집을 발행할 예정이다.

사례집은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누리집과 교육연구정보원의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원은 사례집 본문의 QR코드를 활용하면 아이톡톡 메뉴로 연결되어 실천 계획서, 보고서, 수업자료까지 더 많은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실에서 풀어나간 꾸밈없는 소소한 인권수업 이야기가 열린 교실과 인근 학교에도 퍼져나가 더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하고 첫걸음을 내딛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광남/대기자



A

area 호남 I

10 문화매일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곡성군,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 상황리에 마쳐

곡성군이 11개 읍면 56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9일 시작한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 안전교육을 12월 14일 상황리에 마쳤다.

전남에서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각종 재난 안전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22개 시군별 남도안전학당 안전교육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곡성군도 고령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강사 4명을 위촉하고 교육을 추진했다.

교육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안전교육 강사가 11개 읍면 56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자들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에서 코로나19 예방 수칙, 자살 예방, 교통안전, 화재, 재난재해 안전수칙 등을 상세하게 안내받았다. 모든 교육 참석자들은 발열 체크 및 손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교육에 참여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고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안전과 산지 등으로 수해, 산불 등 재난재해에 취약한 여건이다. 주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앞으로도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주민 안전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연중 펼치고 있다.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동절기, 행락철 등 안전 취약시기에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집중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최상홍기자

‘명량대첩의 신화’ 우수영 관광지, 해남관광 랜드마크 부상

울돌목
스카이워크·해상케이블카
개통이후 관광객 3배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특특

명량대첩 승전지 해남군 우수영 관광지가 서남권 관광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9월 울돌목 스카이워크와 명량해상케이블카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우수영 관광지 입장객은 4만 2,710명으로 전년도 같은기간 1만 4,913명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민간투자로 운영되고 있는 명량해상케이블카도 유료 탑승객 10만명을 돌파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수영 관광지 활성화에 이끔고 있다.

해남군은 민선7기 역점사업으로 우수영과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를 세부과제로 설정하고, 우수영 울돌목의 역사·자연생태를 핵심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왔다.

지난 1986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해남 우수영은 역사관광지로서 굳어진 이미지와 체험시설 및 신규 관광시설의 부재로 관광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총길이 110m의 울돌목 스카이워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유속



을 가진 울돌목의 거센 물살을 직접 느끼며 걸어볼 수 있는 시설이다.

국내 최초의 곡선 모양 보도교로서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강술래를 모티브로, 투명유리로 바닥을 만들고 직선거리 32m까지 바다로 돌출되어 스릴감을 극대화 했다.

총길이 960m로 해남 우수영 관광지와 진도 녹진타워를 오가는 명량해상케이블카는 울돌목 해협을 가로지르는 하늘길을 열었다. 체험 위주의 관광트렌드에 맞춘 스카이워크와 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젊은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으로 방문 추세도 바뀌고 있다.

관광시설 개통과 함께 해남군은 주차장 조성, 관광안내관 정비 등 기반시설을 구축했고 임시상가와 푸드트럭, 주말 명량역사체험마당을 운영하는 등 손님맞이를 위해 다양한 볼

거리와 먹거리를 마련했다.

군은 내년에는 법정스님생가에 조성되는 법정스님 마을도서관과 생활속 역사체험이 가능한 우수영 역사관광촌을 개관할 예정으로, 막바지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울돌목 일원 야간 경관을 대폭 확충하고, 우수영 유스호스텔을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로 조성해 나가는 등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는 우수영 일원을 머물고 가는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이순신 장군의 대승리가 펼쳐진 해남 우수영에 새로운 이미지를 입혀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관광객들이 호국의 성지에서 우수영의 다양한 매력을 느끼고 해남에서 오래 머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양영욱기자

전남노사민정, ‘전남형 상생일자리’ 성공 다짐

**전남도, 협약 기관과
상생협의회 열어...첫 해
성과 공유**



전라남도도와 노사민정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2월 대통령과 노사민정 37개 기관 대표가 함께 협약 선포식을 가진 8.2GW 해상풍력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했다.

전남도는 17일 한국노총 전남지역본부, 발전사, 제조업체, 어민대표, 유관기관 등 노사민정 관계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하반기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를 감안해 이날 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전남도는 ‘전남형 상생일자리’ 지정 추진 상황과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연구용역,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개발 용역 결과 등을 보고하고, 노사민정 대표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사민정이 공동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발전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새로운 소

득원도 창출하는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데 다시금 뜻을 모았다.

전남도는 지난 11월 말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신청서’를 산업부의 산업연구원에 제출하고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상생일자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노사관계 및 산업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전남도는 ‘전남형 상생일자리’ 정부 지정에 온 힘을 쏟아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석훈 전남도 해상풍력산업과장은 “8.2GW 해상풍력은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지역주민, 발전사, 제조업체 등 각계각층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등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전남형 상생일 자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화순군, 80억 규모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내년부터 2024년까지...생활 SOC 확충, 공동체 활성화 거점 공간 조성

화순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돼 화순읍 광덕리 일대 구도심 지역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화순군에 따르면, 16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화순군 등 32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화순군 사업은 ‘문화와 공간이 있는 정원마을’ 사업으로 화순읍 광덕리 일대 구도심지역(면적 2456㎡)이 대상이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80억(국비 36억) 원을 투입, 생활 SOC와 문화·복지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공동체 거점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와 공간이 있는 정원마을 쉼터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커뮤니티센터 운영프로그램, 만연천 산책길 조성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은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3가지 유형으로, 화순군은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인정사업은 도시재생지역 밖 쇠퇴지역에도 생활편의 시설 공급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면적은 10만㎡ 미만, 사업 기간은 3년이다.

김영만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 공모 선정 ‘꽤거’

광주 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 공모에 ‘마을 문제해결 e플랫폼 우리 동네 do반장’으로 광주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2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주민이 직접 기획, 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하는 우수한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발굴,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주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동구는 이번 공모에서 ▲주민참여 ▲사업의 구체성 ▲사업의 효과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마을 문제해결 e플랫폼’은 마을 복지와 소통·자치의 거점인 마을 사랑채를 중심으로 ▲마을의 지역문제 공론화를 통한 마을문제 해결 ▲마을계획 실천단의 활동기록 디



지털화 등 마을 공유공간에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히 ▲우리동네 문제해결 ▲우리동네 생활지도 ▲우리동네 공유공간 ▲우리동네 기록관 등 플랫폼을 마련해 시간과 장소 제약으로 마을 문제에 참여가 어려웠던 주민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마을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마을

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많은 주민들이 마을 현안에 관심을 갖고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특색 및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균형 뉴딜사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2021 겨울방학

행복이 넘치는 특별기획전

전시 프로그램 복어생태전시/물속 친구들의 생존전략/세계의 복(福)

체험 프로그램 방울방울놀이터/모래놀이터/풍선컬링/복불복게임

2021.12.25 토 ~ 2022.2.2 수

오전 10시 ~ 오후 5시30분 매주 월요일, 설 당일 휴관
1월31일 정상운영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 행사 참여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주최·주관 남원시 | 후원 산림청 | 문의 : 063-620-5752~4

2021도시재생한마당주민참여경진대회남원시'소소한정원'최우수상수상

-도시재생뉴딜아카데미에서 만난 인연에서 이어진 결실-



국토부와 청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LH가 주관하는 '2021 도시재생 한마당(12월 15일~12월 17일)'행사가 청주문화재단에서 열렸다. 12월 17일에는 전국 각 시도에서 선정된 11개의 팀이 나름의 성과를 뽐

내는 주민참여경진대회가 치뤄졌다. 이 자리에서 남원시의 '소소(笑笑)한 정원'팀은 숲정리마을 도시재생뉴딜 주민공모사업을 통하여 이뤄낸 성과와 공동체 활성화의 과정을 인정받아 주민화합분야에서 당당히 최우



수상(LH사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소소(笑笑)한 정원'은 2021 상반기 숲정리마을도시재생뉴딜아카데미 "숲정리마을 정원사 양성교육"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주민들로 구성된 공

동체이다. 교육을 통하여 도시정원 및 도시 숲 조성과 관리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게 된 이들은 공동체를 조직한 후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익활동의 즐거움'까지

으로 얻어 이번의 성과를 일궈낸 것이다.

숲정리마을 도시재생뉴딜 상반기 주민공모사업(2021.6~7월) 공모에서 '공간개선 및 활용 활동 분야' 참여 팀으로 선정되어 활동을 전개하였던 '소소(笑笑)한 정원' 팀은 ▲마을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용 정원 및 텃밭 조성 ▲마을 정원·텃밭관리 및 유지보수 ▲지역공동체 활성화(팍파티: 지역주민 화합 한마당) 사업을 펼쳤다. 사업의 성과를 위하여 기술인 공동체의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도시재생한마당에서 당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소(笑笑)한 정원' 팀 대표(박인환)는 "남원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함께 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나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동안 팀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준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로 수상소감을 대신하였다.

이남출기자



area
호남II

문화매일

11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거점 및 통제 방역초소
방문·격려

2021 익산예술인 한마당 및 익산예술상 시상식 개최



(사)한국예총 익산지회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2021 익산예술인 한마당 및 익산예술상 시상식'을 17일 익산통합교육전수관 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현을 익산시장,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 김수홍 국회의원, 최영규, 김기영 도의원, 지역문화예술 등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 19 방역 패스를 준수하여 열렸다. 식전 축하공연은 음악협회에서 박하연, 장미애 씨가 각각 바이올린

'Czardas'와 트럼펫 'You rase me up' 연주를 하였고 무용협회 최윤형 씨가 '금아지무'를 추웠으며, 국악협회 송세운 씨가 국악가요 '난감하네', '쑥대머리', 연예협회 정우선 씨는 대중가요 '살아야지', '사랑의 바보'를 불렀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역 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예술창작 활동에 정진한 예술인들에게 익산 예술상 및 익산시장이 수여됐다. 2021 익산예술상 대상은 문인협회 이순자, 공연예술상은 연예협회 이

익, 창작예술상은 사진작가협회 김현호씨가 수상했다. 익산시장은 국악협회 박상문, 최성철, 무용협회 최수진, 문인협회 배순규, 미술협회 양광식, 사진작가협회 박장석, 연예협회 김효식, 한국예총 익산지회 장선희 씨가 받았다. 특히 국악협회 임하영 씨는 지역 국악 발전과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공로패를 받았으며 이범용 익산시 경제관광국장은 지역예술인의 권익증진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노력해 감사패를 받았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지역예술인들이 지치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이 위기 속에서도 익산예술제, 전라 예술제, 문화예술행사 등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활약상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영규 한국예총 익산지회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예술활동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53년 전통과 역사를 가진 한국예총 익산지회의 8개협회 예술인들의 화합으로 익산의 예술문화를 이끌어 가자"고 말했다. 이순수기자

진안군, 국가예산 확보'값진 성과'

진안군이 내년도 국가예산 총사업비 1,781억원을 확보하면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에 따르면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은 1,781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427억원(31.5%)이 증가한 것이다. 군은 이를 통해 각종 현안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군 미래발전을 위한 든든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의 분야별 규모는 농업·축산 분야 16개 사업, 523억원, 지역개발 분야 7개 사업, 378억원, 문화·관광 분야 6개 사업, 251억원, 환경·산림 분야 등 12개 사업, 68억원이다. 국가예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진안군 농촌협약사업(426억원)을 시작으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138억원), 황금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정비사업(112억원), 진안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102억원), 진안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89억원) 등이다. 계속사업으로는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275억원), 폐자원 재활용 사업(18억원) 등 561억원을 2022년도 국·도비로 확보했다. 군은 코로나19 관련 예산 등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춘성 군수를 필두로 중앙부처 단계에서부터 10~11월 국회 단계까지 지역구인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공조를 이어오고, 예산정책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차례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건의했다. 국회 단계에서도 수시로 진안과 서울을 오가는 강행군을 추진한 결과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200억원, 공모진행), 특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60억원), 진안 동향·하초 하수관로 정비사업(38억원) 등을 추가로 증액·확보하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다. 전춘성 군수는 "각 부처 및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에서부터 국회 심의까지 단계별로 중앙부처와 국회 핵심 관계자들을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신속히 대처하고, 공직자와 전북도·지역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신규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통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진안군의 대도약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전주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 마음 치유 계속된다

시, 2021년 마음치유 지원사업 추진으로 전주 시민의 우울·불안·스트레스 낮춰

로 확인됐다. 올해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시민은 "마스크 공장 경영난으로 인해 월급의 4분의 1만 받으며 기약 없는 휴직 기간을 버티다 반강압적으로 퇴사하게 된 상황으로 인해, 극도의 우울감과 무기력감으로 힘든 시기를 지내던 이중 마음치유 상담소를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힘든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 참여자는 현재 병원 진료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의뢰된 다른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도 "경제적인 타격과 더불어 홀로 보내

는 시간이 많아져 무기력감이 심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신체적 증상도 생길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재취업을 위해 방만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마음치유지원사업을 소개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사람들과의 대화와 공감을 통해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 특히 원예치유로 인해 원예 활동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지인들에게 만든 화분을 나눠주며 활력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선 전주시보건의료장은 "활발한 마음치유 사업으로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전주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마음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전주시가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돌보는 데 공을 들인다. 전주시보건의료는 내년에도 전주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마음치유상담소를 통해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마음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전주시 마음치유상담소는 그간 진행해온 프로그램의 일부를 개편,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위한 한층 강화된 사업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부터 마음치유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올해의 경우 500여 명의 시민이 마음치유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정신건강 상담을 받았으며, 1300여 명의 시민이 예술치유, 명상, 감정코칭, 영화치유, 심리극, 원예치유 등의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사후 정신건강 검사에서는 참여자의 우울·불안·스트레스 수준이 평균 5~6점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낸 것으

임실군, 고백 종갓집 활용사업 우수사업 선정 쾌거

임실군 고백 종갓집 활용사업이 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문화재정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안았다고 17일 밝혔다. 임실군에서 주최하고 문화재아우트리치연구소가 주관한 2021년 고백 종갓집 활용사업은 도 민속자료 제 12호 이용재 고가를 중심으로 둔덕 이씨 종가음식배우기와 규방문화체험, 혼불문학기행 등 모듬한 '맛있 부대끼는 날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중앙아시아 유학생, 경기도 천안의 역사문화연구원, 임실과 지사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민들과의 유대감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둔덕생활문화권역에는 민속문화재 제 12호 이용재 고개, 유형문화재 제 160호 삼계강사계간,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삼계석문과 단구대 등이 자리하고 있고 최근에 구로정(九老亭) 복원이 이루어진 문화 활성화 지역이다. 사업을 진행한 문화재아우트리치연구소 전경미 단장은 "5백년 종가가 살아 숨 쉬는 고백을 되살리고 고백문화를 수순대후(守先待後)하고자 하며 '혼불'처럼 각 가문의 며느리들의 생활 속 숨은 이야기를 계속 발굴해 낼 것이다"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이번 수상으로 우리 문화재가 있는 마을에 활기를 북돋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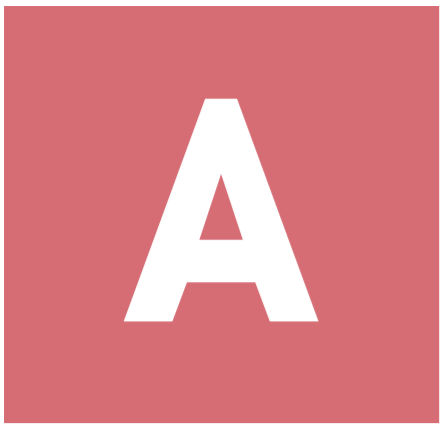
한편 이용재 고가는 조선초 중종대 춘성정 이담순(효령대군의 증손자)이 오수면 둔덕리 동촌마을에 터를 잡은 이래 500년간 세거해온 종갓집으로 전형적인 사대부가 양반 가옥이다. 여러 번 수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솟을대문 앞에 하마석이 놓여있고 대문 위에는 고종 7년(1870)에 내려진 이문주의 정려 현판이 걸려 있다. '1·자형 사랑채와' 2·자형 안채, 안행랑채와 사당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최명희 장편소설 '혼불'의 배경지이기도 하다. 최하은기자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는 17일 방역 최일선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소독초소' 8개소를 방문하여 소독초소 소독 실시상황과 소독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등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금번 현장방문은 겨울 철새 도래에 따른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고 전남, 전남의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현장방문을 통한 근무자 격려와 축산농가 및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진행되었다. 김제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거점소독초소 3곳, 통제소독초소 5곳, 대규모농장초소 8곳,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1곳, 계단화적장 초소 2곳을 포함 19개의 방역초소를 운영 중이다. 김병철 소장은 "지난 해 AI의 전국적 확산으로 산란계 밀집지역인 용지읍 AI로부터 지켜냈던 것은 최일선에서 차단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차량 및 사람의 소독과 이동통제를 담당했던 초소 근무자들의 노력이었다"면서 추운 겨울 근무자 건강 유의 당부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시라도 방심하면 언제든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 축산차량 소독을 철저히 하여 AI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농가 지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태기자

군산시, 시민의 염원을 모아, '2022년 희망을 불빛을 밝히다!'

군산시가 17일 구시청광장에서 야간경관시설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번 점등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군산시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장, 군산시의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일상회복 등 2022년 새해에 바라는 군산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2022개의 손뜨개 수세미를 사용해서 제작됐으며 원도수세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야간 불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일준 군산시장은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일상의 불편함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방역 활동에 협조해주시는 시민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하며 "잠시나마 시민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과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야간경관시설은 내년 2월 7일까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김현태기자



area

강원/충청

12 문화매일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충청남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성과 빛났다

도, 16일 성과 보고회·유공자 시상식 개최...우수사례 공유 등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는 16일 온양제일호텔에서 '2021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성과보고회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추진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노동정책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코자 마련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와 안장현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김경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직주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활동 및 우수사례 보고, 시상·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도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선정 우수지자체 표창에 선정, 전국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개인 부분에서는 노사 간 협력, 상생 문화 정착 등에 공로를 인정받은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 2명이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표창 유공자 부문에서는 지역 노사관계 발전과 지역 고용·인적 자원 개발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개인 7명과 4개 단체가 수상했다.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대상에 '지역 사회적 대화 촉진자 양성 교육'이, 최우수상에 '충남 노사민정 코로나19 극복 단계적 일상회복 다짐대회'가, 우수상에 '충남 잡(JOB)담

콘서트'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노동정책 추진 유공자로 는 도 노동정책 추진에 공헌을 한 개인 5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지사는 "충남 노사민정협의회가 우리 지역의 노동·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충남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 노사민정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춘천시, 귀농·귀촌 궁금한 점,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귀농·귀촌에 대해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상담 홍보전이 펼쳐진다.

춘천시정부에 따르면 춘천시 귀농·귀촌지원센터는 20일부터 29일까지 귀농·귀촌 온라인 상담 홍보전을 개최한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맞춤형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 박람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현장 상담이 어려워진 요즘 귀농·귀촌 전문상담가와 일대일 화상 상담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관객들의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정책 및 지원사업 등 궁금한 점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

온라인 화상 상담은 행사 기간 중 오전 10~오후 5시 사이에 가능하며, 미리 상담 예약을 하면 문자로 화상 상담 링크를 보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화상 상담과 온라인상담을 진행한 시민에게 춘천시 귀농·귀촌책자와 다양한 홍보 물품이 들어있는 귀농·귀촌키트박스를 지급한다.

이 외에도 사전 녹화를 통해 준비된 귀농인과 청년농업인의 생활상과 귀농귀촌의 노하우 등 메시지를 전달한다.

함종범 미래농업과장은 "이번 '귀농귀촌 화상 상담 홍보전'이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춘천시의 귀농귀촌 유치가 발돋움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양양 휴휴암 소장 전적류(典籍類) 강원도 문화재 지정

양양군은 현남면 광진리에 위치한 사찰인 휴휴암에서 소장하고 있는 '관동빈흥록(關東賓興錄)' 등 전적 4점에 대하여 12월 17일자로 강원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관동빈흥록'은 조선시대 강원도 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시험의 전말과 급제한 과문을 수록한 목활자본으로, 규장각에서 편집하여 1794년 강원감영에서 간행됐다.

이는 18세기 말 정조의 지방인재 등용 정책과 강원도 유생들의 현황을 살펴 볼 수 있는 지역의 중요한 사료(史料)로 평가되어 강원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흔하지 않은 밀교계통의 개설서이면서 한글 연구의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은 '개간비밀교(開刊秘密敎)'와 조선시대 불교경전의 간행 등을 엿볼 수 있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조선시대 목판 판각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지장보살본願經(地藏菩薩本願經)' 등 3점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강원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한편, 현재 양양군의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18점, 도 지정 24점 등 총 42점을 지정 문화재로 관리·보존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철원군 재해복구사업 갈말106호선(목련공원길) 도로 개설 준공

철원군은 12월20일 갈말106호선 재해복구사업인 대자사 ~ 목련공원길 도로가 개통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개통으로 재해복구사업 조기 완공 및 안전한 주민통행로가 확보됐다.

2020. 7. 28. ~ 8. 11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도로분야 복구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 설계등 행정절차를 사전 완료하고 도로분야(군도 및 농어촌도로 및 평화누리길) 25개소 복구비 51억원을 투입하여 2021. 12월 전 구간을 복구완료했다.

특히 그동안 목련공원길은 비포장 도로로 잦은 수해피해가 있었으며, 목련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군민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급회 도로개설로

재해예방 및 공원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게됐다.

그동안 철원군은 중앙부처와 강원도에 재해복구비 조기확보 및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국비확보에 노력한 결과 도로분야 재해복구사업 조기 완공으로 군민불편 최소화 및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중 철원군수는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강원도와 협력하여 철원군 재해발생시 국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선제적이고 신속한 집행으로 군민의 안전과 반복적인 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말했다.

이세나기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한해 동안 고생 많았던 청년들 토닥토닥 청년의 밤 성료

코로나19 상황, 각자의 위치에서 활발한 활동 해준 청년들 감사해요

대전광역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16일 오후 7시 대전시 유성구 소재 '드림 아레나 e-sports 경기장'에서 '2021년 청년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 100여명이 비대면으로 2시간 동안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식전 행사로는 4:4로 롤(League of Legend) 게임이 진행되면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졌다. 또 1년간 청년 정책에 최선을 다 한 청년 활동가에 대한 대전광역시시장 표창 시상부터 허태정 대전광역시시장과 청년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청춘 토크' 토크콘서트, 배달의 민족 마케터 출신 이승희 마케터의 강연으로 풍성하게 구성됐다.

'청춘 토크' 토크 콘서트에서는 4명의 MZ세대 패널이 참여했다. 이들은 청년 공간을 운영하는 워킹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창업



가 등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청년들이다. 패널들은 현재 시점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고, 허태정 시장은 이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강연자로 초청된 이승희(34) 씨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인 '마케터' 영역에서 활약을 벌이고 있는 브랜딩, 마케팅 전문가다. 대전의 한 치과에서 마케터로 커리어를 시작해 배달의 민족을 거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 씨는 대전시 청년들에게 "좋아하는 것들로 결과물

을 내는 방법' 등 청년들이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공유했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한태희(대전시 중구)씨는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정 등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청년들이 서로 비대면으로 함께 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었다"면서 "2022년은 기운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청년의 밤'은 올해 4회째 대전시의 대표 연말 청년 행사로 자리 잡았다.

김원호기자

삼척시 청년들의 소통 공간, '삼척청년센터' 개소

삼척시의 청년을 위한 공간인 '삼척청년센터'가 문을 열었다. 삼척청년센터는 삼척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11억6천만원(국비 등 포함)을 투입해 삼척시 대학로 45-1(당지동 143-6)에 연면적 422㎡, 지상 3층 규모로 지난 9월 완공됐다.

청년센터 1층에는 직원들을 위한 사무공간, 2층은 동아리실과 집중실(개인 스터디 등), 다목적실, 3층은 청년들을 위한 공유카페가 갖춰져 있으며, 삼척시 청년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청년 모임 행사를 위한 대관은 사전 예약 후 무료로 이용하면 된다. 또한, 3층 카페도 커피머신 이 설치돼 있어 직접 사용하면 된다. 삼척청년센터에서는 오는 20

일부터 31일까지 '개소 주간'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행사로 오는 23일과 24일에 센터를 방문하는 청년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포토존을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청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창업 지원 프로젝트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명절, 가정의 달, 청년의 날 등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들로 삼척시 청년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원활한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등원기자



괴산군,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

충북 괴산군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괴산읍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연풍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50.5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9월 괴산읍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10월 연풍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공모 신청했으며, 국토부의 실용성 및 타당성평가와 도시재생 실무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먼저 괴산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괴산의 삶, 희망과 행복을 누리는 괴산행복터미널 조성'을 비전으로 괴산읍 동부리 675-2번지 일원(괴산군 여성회관)에 총사업비 139.64억원을 투입해 내년부 2024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공건축물(괴산군 여성회관)을 재생하여 저층부에 공공서비스 거점시설인 '괴산행복누리센터'를 조성해 부족한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을 공급하고, 상층부에 자체 군비로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20호)인 '꿈자람보금자리'를 조성해 청년층 인구의 유입과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괴산미니복합타운으로 이전 예정인 괴산어린이집의 유유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67면(지하42면, 지상 25면)을 조성하고, 대한노인회 괴산읍 분회를 리모델링해 노인문화복지 공간으로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연풍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옛 바람이 부는 연풍을 영구다'를 비전으로 연풍면 향교로 일원에 총사업비 2.9억을 투입하여 2022년 1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네한바퀴 길 조성 및 걷기 캠페인 △온라인 사랑방 운영 △마을소식지 제작 △지역특화상품 발굴 등 주민조직을 구성하고 역량을 강화해,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연속성을 확보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괴산읍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연풍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통해 쇠퇴한 도심을 재생하여 지역산권이 활성화되고 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화천군 도시재생 청신호 사업비 총 674억원 투입

접경지역 화천군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청신호가 켜졌다.

화천군은 올해 국토교통부의 제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화천읍 중리지구 '평화나라, 축제도시 산천어 마을'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본사업이 확정된 중리 지구에는 국비 100억원 등 2027년까지 총 66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화천군이 화천읍 상리지구와 사내면 사창리 지구 역시 도시재생 예비사업 대상자로 확정돼 각각 사업비 2억원과 3억원이 확보됐다.

화천읍 중리 뉴딜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지금의 화천읍사무소 부지에는 행복주택 84호, 주차장, 읍사무소로 구성된 행정복합타운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화천읍 5일장 구역에 산천어를 테마로 하는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복합거점시설 '산천어의 집'이 들어설 전망이다.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산타 우체국 대한민국 1호가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는 이를 모티브로 한 '산타동네'가 조성되며, 화천 공영터미널에는 방문자 센터가 설치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비사업이 확정된 화천읍 상리지구에서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독거노인 반찬나

눔사업 거점조성, 주민참여 경관가드닝 사업 등이 진행돼 정주여건 향상이 기대된다.

역시 예비사업이 진행될 사창리 지구도 주민 공동체 거점조성, 중고물품 장터운영, 주민 PD 양성사업 등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편, 화천군은 올해 4월 화천읍

에 화천군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도시재생 사업을 화천군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광산구의회 김은단 구의원, 수완동 마을발전 '공로패' 받아

광산구의회 김은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7일 수완동 주민자치회로부터 마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수완동 주민자치회는 “김은단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을공동체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온 공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전달한다”고 밝혔다.

김은단 의원은 “앞으로도 광산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은 바소임에 더욱 노력해 달라는 주민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제8대 광산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기획총무위원과 부위원장, 자원순환 연구회 대표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구민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순환정책 마련, 효행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 등 살기 좋은 광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김덕윤/기자

화성시의회 송선영, 김도근 의원 '제8회 화성시 예술인의 날 감사패' 수상

화성시의회 송선영(국민의힘, 향남,양감,정남), 김도근(더불어민주당, 봉담,기배,화산)의원이 17일 컨벤션 더 힐에서 (사)한국예총 화성지회(회장: 양진춘)에서 주최, 주관 한 '제8회 화성시 예술인의 날'에서 감사패를 수상하였다.

송선영, 김도근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활동으로 화성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었다.

송선영 의원은 제8대 후반기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수행하며 '화성시 생활문화진흥조례',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등을 발의하는 등 화성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으며, 관내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사립미술관 등 많은 문화예술 공간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김도근 의원은 제8대 후반기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며 '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



는 등 왕성한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 기간 동안, 문화예술 진흥과 자치치를 위해 문화·예술인들과 수 많은 간담회를 갖는 등 끊임없는 소통을 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이다. 송선영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뜻 깊은 감사패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힘든 요즘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문화·예술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들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김도근 의원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감사패를 주셨다고 생각하며,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 등으로 인해 기존보다 더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며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양시현/기자

경기도의회 권정선 도의원, '2021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개천5)이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1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에서 의정발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1년째를 맞은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은 한국언론연합회, 국회출입기자클럽 등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인물의 업적을 평가해 한국인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정선 의원은 전국 최초의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기본 조례」 등 지금까지 26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416건의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는 등 탁월한 입법성과를 보여왔다. 또한 11회에 걸친 본회의의 조성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무부대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입법정책위원회로 활동하면서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 증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이번 수상에 대해 권정선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 것 뿐인데 과분하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수상의 영광이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아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한층 더 열심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혜영/기자



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유도팀, 2021 제주컵전국유도대회 금 4, 은 2 획득

경남도청 유도팀(감독 김재식, 코치 안수정)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2021 제주컵전국유도대회' 남자부 단체전에서 우승해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금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한유도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대회로 22개 팀 145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띤 경쟁을 벌였다.

남자단체전에 박종렬, 고재경, 이승수, 하종용, 양성민, 강대봉이 참가해 양평군청과의 결승전을 3-2로 이기고 금메달을, 개인전에 출전한 강대봉(-100kg), 김해빈(-63kg), 유지영(-70kg)은 금메달을, 박종렬(-66kg), 하종용(-100kg)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경남도는 메달을 차지한 강대봉 외 9명의 지도자와 선수에게 포상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창덕 도 지관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연습과 최선을 다한 결과로 올해 대회마다 경상남도의 위상을 올린 유도팀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상남도청은 역도·유도·롤러 3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도팀 14명 등 40명의 지도자와 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윤광남/대기자

태백시자원봉사센터, '10월 박의도, 11월 안경숙 이달의 태백봉사왕 선정

태백시자원봉사센터는 16일 태백시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10월 박의도, 11월 안경숙님을 이달의 태백봉사왕으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진행했다.

10월 태백봉사왕으로 선정된 박의도는 황지고 학생 안심귀가 및 야간자율방범, 태백 버추얼 챌린저 대회 지원 봉사활동으로 9월 한 달간 총 14회, 79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다.

11월 태백봉사왕으로 선정된 안경숙님은 자원봉사 마당발 SNS포스터 활동, 요양원 주방일손 돕기, 태백탄탄방상, 따뜻한 겨울나기 집장나

늘 봉사, 사랑의 행복바구니사업(밀반찬만들기), 찾아가는 "Making a safe house" 방역 봉사활동 등 10월 한달 간 총 27회, 66시간의 폭넓은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로 상을 수상했다.

센터 관계자는 “봉사왕으로 선정된 박의도, 안경숙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의 많은 이에게 따스한 손길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으며 태백시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나/기자



오태완 의령군수, 행정혁신분야 '대상' 2관왕 영예

오태완 의령군수가 지난 2일 '2021년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에 이어 17일에는 한국언론연합회가 선정하는 '2021년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행정혁신 분야에서 연이어 큰 상을 받은 오 군수의 행정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17일 오태완 군수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년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행정혁신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는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연합회, 국회 출입기자클럽이 주관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인물 대상은 매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모범이 되는 인물을 발굴해 정치, 지방행정, 경제발전, 문화예술, 사회봉사 등 16개 부문에 걸쳐 시상한다.

특히 이 상은 권위있는 언론기관과 국회 출입기자, 국내외 대학교수가 다수 선정 위원으로 참석해 공신력이 높은 수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지난 4월 재선로 취임한 오태완 군수는 의령미래 50년 비전을 제시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참여 자치 행정을 실현해 의령 발전의 탄탄한 주춧돌을 놓고 있다.

또한 공공자원을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하거나 공유하는 행정을 펼쳐 행정안전부로부터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평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기도 했다.



의령군은 귀가 학생 택시 공유서비스 제공, 중소 영세 사업장 작업복 공동제작소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연계한 농기계 공유사업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표 행정 우수 사례로 꼽혔다.

특히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맞서 경남에서 최초로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설치해 한발 빠른 행정시스템 구축과 코로나 감염 위기 속에 '찾아가는 백신 접종'으로 주민 행정을 높인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한편, 2일 수상한 '2021년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은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자랑스런 한국인을 브랜드가치연구소가 꼼꼼한 데이터를 분석해 선정자를 발표

한다. 오 군수는 20년 의령군민의 숙원이었던 국도20호선 확장사업을 정부사업으로 선정시킨 행정력과 전국 최초 미래교육기관인 미래교육테마파크, 경남 중심의 미래신성장 산업단지 부림일반산업단지의 착공부터 조성까지의 원활하고도 혁신적인 사업 추진이 큰 점수를 받았다.

17일 '2021년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오태완 군수는 “이번 수상은 의령군 주권자이신 군민들과 의령 발전을 위해 분투하는 공직자들을 대신해 받은 상”이라며 “가장 현명한 군민과 함께 의령 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하나씩 내딛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영훈/기자

창원시, 2021년 최고 경영인 연구팀 상 시상

창원시는 17일 오후 4시 접견실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창원경제를 빛낸 '2021년 최고 경영인·연구팀 상' 수상자로 ㈜고려기업 이월우 대표이사, (주)분시스템즈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시상식을 가졌다.

창원시 최고 경영인·연구팀 상은 민간위원 심사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인과 연구실적이 뛰어난 연구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시는 2004년 10월부터 최고 경영인·연구팀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최고 경영인 상 수상자인 이월우 대표이사가 이끄는 (㈜고려기업은 철강선 부품 생산기업이다. 1988년 고려기업 설립 이후 과감한 R&D 투자한 결과, 국내 최초 중량분산장치를 통한 정밀스프링용 와이어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지역경제에 연간 20억 원의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상생경영을 기업이념으로 삼고 노사화합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58백만 원을 기탁, 범부부 경쟁보호공단 및 양로원 등 기부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최고 연구팀 상을 수상한 (주)분시스템즈 기업부설연구소는 감속기·3D프린트 분야 전문기업이며, 일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감속기 분야에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하여 지역 제조산업 경쟁력을 높였다. 경남대학교 및 창원대학교와 산학협력 가족회사 협약 체결하여 대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상기업은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우기업으로 선정돼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홍보,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변화와 위기가 있음에도 훌륭한 성과를 내준 기업인·연구팀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지역 산업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경영/기자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 성금 기부

충남도는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로부터 성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정광영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장은 이날 도청 외부접견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양승조 지사에게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을 기탁했다.

도는 기탁받은 성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다양한 복지 사업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웃사랑 실천으로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는 예산에 소재지를 두고, 건축사의 품의 유지와 상호 협력의 강화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C

culture 문화

14 문화매일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대구오페라하우스, 제야음악회 'Adieu 2021' 공연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오는 12월 31일 금요일, 제야음악회 'Adieu 2021'로 한 해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제야음악회는 대개 늦은 밤 시작해서 해를 넘겨 진행하는 형태를 갖지만, 올해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제야음악회는 코로나19 관련한 당국의 방역지침 강화로 저녁 7시30분에 진행하게 된다.

■ 대구오페라하우스와 대구시민이 함께하는 올해의 마무리!

12월 31일 오후7시 30분,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될 이번 제야음악회의 타이틀은 'Adieu 2021'이다. 'Adieu(아듀)'는 프랑스어로 헤어져의 '안녕'을 뜻하는 말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힘들었던 2021년에 안녕을 고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기대를 담았다. 비록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날들이 많지 않았지만, 한 해의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대구오페라하우스는 공연 전 '포춘쿠키' 증정 이벤트를 준비해 관객에게 연말 분위기와 함께 기분 좋은 추억을 선물한다. '포춘쿠키'를 열면 새해의 운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대구오페라하우스 기획공연인 오페라 '박쥐'의 입장권 또한 경품으로 준비해 총 서른명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 유명 아리아와 뮤지컬 넘버, 바이올린 독주곡 등 특별하게 구성된 프로그램

신사담과 부드러운 이미지의 배우이자 CBS음악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진행자로 클래식 대중화에 힘써온 인기 배우 강석우가 사회를 맡고,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지휘자 배종훈의 지휘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소프라노 고수진, 김은희, 소프라노 최정원, 쓰리테너 하이체, 바리톤 최윤성 등 걸출한 성악가들과 바이올리니스트 안재경, 뮤직컬배우 민우혁이 출연해 오페라 '투란도트', '토스카', '루살카', '카르멘'의 유명 아리아와 바이올린 독주곡,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와 '프랑켄슈타인'의 대표 넘버 등 폭넓고 대중적인 구성의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대구오페라하우스 박인건 대표는 "길어진 팬데믹 상황에서 힘겨운 한 해를 보냈을 대구시민에게 음악으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고자 제야음악회를 준비했다"며, "제야음악회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2022년 신년오페라 '박쥐'로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제야음악회 'Adieu 2021'의 객석은 '동반자 외 거리두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입장권 가격은 1만원에서 5만원까지이다. 대구오페라하우스 홈페이지와 인터파크를 통한 온라인 예매 및 전화(1544-1555)예매가 가능하며, 다양한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방역패스 시행 기관으로, 2차 백신접종완료 증명서(전자·종이증명서)나 48시간 이내에 통보받은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박종채기자

숫자로 보는 2021 순천시 문화정책! 1,2,3,10 그리고 1597

위기 속에서 진면목을 발견한다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천시의 문화정책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분야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문화예술 분야인 만큼 문화예술 단체 정상화 운영, 창작활동 보조금 및 재난 지원금 지원 등 지역 문화 활성화에 온 힘을 쏟았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비대 행사 및 사업 수행, 문화적 실험 등을 선제적으로 시도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문화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었던 순천시의 문화정책들을 뜻깊은 의미를 부여하여 숫자로 풀어본다.

제1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도약지만 7월 명승 제41호인 순천만 갯벌이 한국의 15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국내 유산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이후 14년만으로 그 가치를 더한다. 이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지난 2018년 선암사 세계 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전국 최초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동시에 보유한 제1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 거듭났다.

시는 선암사에 이어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성과를 바탕으로 잠정 목록에 등재된 낙안읍성의 2026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가칭)한국음성도시협의회 구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투어 개발 등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노력을 펼쳐가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답게 올해 보물로 지정된 순천향교 대성전(제2101호), 순천 팔마비(제2122호) 등과 연계해 문화재 활용 제1의 도시로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2년 연속 한국을 대표하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수평, 최초 지자체

동아시아문화도시는 매년 한중일 대표 도시를 선정하여 각국 공식행사 및 연중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



는 국제 교류사업이다.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로 한국 순천시, 중국 소흥시·돈황시, 일본 기타큐슈시 3개국 4개 도시가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순천시는 당초 2020년 수행하려 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2년 연속 동아시아문화도시로 되는 행운을 얻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온라인 교류 및 한중일 콘텐츠를 소재로 한 각종 문화교류 사업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내에 문화예술 작품으로 설치된 수상 무대에서 감동적으로 연출된 개막식, 한중일 서예전각 고수들의 작품 교류전 시전, 생태와 기술 그리고 예술의 융합을 보여준 한중일 미래융합 페스티벌, 동아시아 그림책&웹툰 페스타, 한중일 평화포럼, 3국을 대표하는 전통의상을 선보인 한중일 전통의상 패션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동아시아 청소년예술제, 순천부 읍성 남문터에서 열린 폐막식 등은 순천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 영토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후속사업을 통한 상호 방문 등 문화교류를 더욱 확대해 갈 계획이다.

국가가 인정하는 제3차 법정 문화

도시 지정 총력

순천시는 생태문화를 생태도시 브랜드 명성에 걸맞게, 이제는 외형이 아닌 그 가치와 철학, 과정 등이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양식으로 자리잡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정원을 품은 생태문화도시, 순천'을 문화도시 비전으로 정했다.

문화도시 국가지정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5개 내외의 도시를 지정한다. 5년 간 최대 200억 원에 산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가 세 번째다. 순천시는 2019년 전남에서 유일하게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2년 동안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예비사업은 사람중심 거버넌스 구축, 시민 문화자치24, 생태문화지수 지표 개발, 이야기정원 플랫폼 등으로 일상 속에서 생태문화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올 연말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개관 10주년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이했다.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은 최초의 한글전용, 가로쓰기 잡지인 월간 '뿌리깊은 나무'를 발행한 고훈창기 선생(1936~1997)이

생전에 수집한 6,500여 점의 민속유물을 소장, 보존, 전시하고 있다.

시는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함'을 주제로 한 특별 기획전 '담다, 그리고 품다'를 오는 12월 26일까지 개최한다. 왕실에서 전용함 '죽제함'부터 서민들이 애용한 '죽제함' 등 미공개 유물 50여 점을 전시한다.

대구모 형사와 연계한 찾아가는 박물관 홍보부스 운영, 개관 10주년 기념주간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뿌리깊은 나무박물관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다.

1597년을 기억한다! 정유재란 역사공원화 사업 본격 추진

1597년에 일어났던 정유재란은 순천시민들의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잊어서는 안 될 호남의 아픈 역사다.

시는 정유재란 역사공원화 사업을 통해 정유재란의 흔적과 가치를 재조명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역사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 첫 시작으로 지난 4월에 해룡면 신성리 옛 충무초등학교에 정유재란 역사공원 평화광장을 개장했다. 정유재란과 민초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아픔의 기록을 승화한 조각상들과 평화의 문구가 기록된 1,597개의 판석 그리고 정유재란의 기록이 담긴 히스토리 월로 구성됐다.

내년에는 옛 충무초 교실 내부에 현대적 기술을 접목하여 디오라마와 증강현실(AR)을 도입한 영상관, 전시실, 체험실 등의 역사체험 학습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순천읍성을 중심으로 한 전적지 사적 승격, 역사관 건립, 역사탐방길 조성, 전적지 일원 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생태에 문화의 옷을 입고 예술의 선율을 더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삶 속에서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리는 더 행복한 문화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서울시, 돈의문마을 '추억의 음악다방' 오픈... DJ와 함께 그 때 그 시절로

서울시는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에 옛 음악다방을 콘셉트로 한 전시관 '추억의 음악다방'을 개관한다. 음악다방 DJ에게 직접 원하는 노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간으로 7080 세대에게는 추억의 향수와 낭만을,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추억의 음악다방'(35면동 3층)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입장료는 무료다.

'추억의 음악다방'은 총 500여 장의 LP를 갖춘 'DJ 뮤직 박스'가 조성되어 있어 매주 금-일, 전문 DJ가 직접 접수 받은 시민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소개한다. 관람객은 각 테이블에 놓은 메모지를 통해 듣고 싶은 노래와 사연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DJ 타임 중에는 마을 전관방송을 통해 돈의문박물관마을 곳곳에서 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1976년부터 전문 DJ로 활동해온 '현역 유익 음악다방 DJ' 장민욱 씨가 그간 비법을 바탕으로 매주 금-일 오후 개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추억의 음악다방'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을 법한 '복고 콘셉트'에 맞는 다양한 소품으로 꾸며진 공간으로 디지털 시대에 만나기 어려운 '아날로그적' 감성을 되살릴 수 있는 공간이다. 세대 간 소통이 단절된 요즘, '추억의 음악다방'이라는 공간을 통해 음악을 매개로 세대 간의 공감과 화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추억의 음악다방' 내에서는 별도의 식음료를 판매하지 않지만,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편의시설인 '서공'(카페), '사랑채'(전통차집), '학교 앞 분식'(분식), '엔티크라운지'(양식)에서 구매할 식음료의 반입 및 취식이 가능하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방역패스 의무 기관으로 방역소독 혹은 PCR 음성 확인서가 확인된 시민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며, 안전한 관람을 위해 마을 입장 시 '마을안내소'에서 체온측정 및 QR체크인 후 입장팔찌를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추억의 음악다방 오픈을 기념하여 서울시 문화본부 인스타그램(@seoulcity_culture)에서는 '추억의 음악다방' 인증샷 이벤트가 진행된다.

돈의문박물관마을 '추억의 음악다방'을 방문하여 인증샷을 찍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시민 중 50명을 추첨해 핫초코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돈의문박물관마을을 추억의 음악다방에서 7080 세대는 옛 추억을 되살리고, 젊은 세대는 이색적인 체험을 즐기시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돈의문박물관마을에 전세대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2021 강릉시 온라인 청소년어울림마당 폐막 행사

강릉시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2021 강릉시 온라인 청소년어울림마당 폐막 행사를 '강릉시청소년수련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청소년활동 우수자에게 강릉시장 표창장을 수여하는 시상식과 더불어, 보이는 라디오 '별빛'과 청소년동아리 공연이 펼쳐진다.

청소년어울림마당 기획단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보이는 라디오 '별빛'은 사전 접수된 청소년 사연과 고민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과 ASMR 퀴즈 및 레크리에이션 등 시청자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시청방법은 유튜브 검색 '강릉시청소년수련관'을 통해 가능하며 실시간 방송 참여자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등원기자

서울역사편찬원, '2020 서울 시정일지' 발간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 열람 가능

서울역사편찬원은 2020년도 서울의 시정 및 통계자료를 모아 《2020 서울 시정일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2020 서울 시정일지》는 2020년 한 해 서울의 시정현황을 담은 자료이다.

서울역사편찬원에서는 1972년부터 매년 서울의 시정자료를 모아 《시정주요일지》를 편찬해 왔으며, 2015년도부터는 월별 통계자료, 일별 날씨, 주요 뉴스 등을 추가한《서울 시정일지》를 편찬하고 있다.

《서울 시정일지》는 서울시 주요 업무 및 행사, 신규자치법규 등과 함께 서울 관련 통계자료, 국내·외 뉴스, 행사 관련 사진, 일자별 날씨 등을 추가하여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발간된 《2020 서울 시정일지》는 2020년도 발생, 확산되었던 '코로나19'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뉴스 기사와 통계자료를 적극 반영하였기 때문에 향후 시정자료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20 서울 시정일지》에 수록된 통계자료를 따르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비임금근로자, 즉 자영업자의 70.5%가 휴업을 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했고, 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이를 반영하듯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민의 우울감은 10점 만점에 전체 평균 6.19점이며, 우울감의 주요 원인으로는 '감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52.4%, 이하 1+2순위 종합결과), '외출자제로 인한 갑갑함'(43.4%),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29.5%) 순으로 이어졌다. 일상생활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서울 시민들이 생각하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한 일상생활'의 변화로는 '배달음식 이용 횟수의 증

수원시, 평화도시 평창에 수원민족미술협회 회원들 작품 전시된다

평창평화도시선포2주년기념수원-평창평화미술교류전



수원민족미술협회(회장 신승녀) 회원들의 작품이 강원도 평창군에 전시된다.

평창 평화도시 선포 2주년 기념 '수원-평창 평화미술교류전'이 16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평창군 진부면 진부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30여 년 동안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미술 활동을 해온 수원민족미술협회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권윤희 작가의 '백두대간', 이오연 작가의 '아버지의 땅', 이혜균 작가의 '적근산의 겨울' 등 작가 30명의 작품 4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16일 진부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민족미술협회 작가, 한왕기 평창군수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민족미술협회 회원들의 작품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염원을 평창군민 여러분과 나누고, '하나 된 민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이번 전시회는 30년 넘게 미술 활동을 펼쳐온 수원민족미술협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우리 민족의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당시 수원시도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을 창단해 '평화올림픽' 완성에 힘을 보탰다"고 말했다.

이어 "평창과 수원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길에 변함없는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혜영기자



경상남도, 올해 경남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7개 분야 시상

경남 농업·농촌 발전 유공 표창 25점(기관 11, 개인 14) 시상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정재민)은 '2021년 농촌진흥사업 시상식'을 개최하고 올해 경남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11개 우수 기관과 유공자 14명에게 표창을 시상했다.

12월 17일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을 위한 수상자(기관 및 개인)만 참석하도록 하여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시군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 농업인학습단체 임원, 농업인 등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달하였다.

올해 농촌진흥사업 성과보고회에



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기관으로 의령군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사업 최고 대상을 받아 도지사 상패와 3백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함양군이 2백만 원의 상금을 받았으며, 밀양시, 사천시, 진주시 3개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우수상을 받아 각각 상패와 1백만 원씩

의 상금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2021년도 강소농 성과보고회도 함께 열렸는데, 김해시농업기술센터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상금 200만 원을 받았으며, 우수상에는 진주시농업기술센터가 선정되어 1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강소농 분야 유공공무원과 우수

농업인 시상에서는 문다빈(산청군농업기술센터)지도사, 윤성심(함양군농업기술센터) 주무관이 각각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 이정욱(창원시강소농연합회)씨, 백종명(사천시강소농연합회)씨, 채민성(밀양시강소농연합회)씨, 윤상임(거창군강소농연합회)씨 등 4명

의 농업인이 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우수 품목농업인연구회에는 김해시 품목농업인연구회(회장 김진옥)가 도지사상을 수상하였다.

농촌지도사업분야 유공공무원과 우수 농업인 시상에는 이항이(의령군농업기술센터) 주무관, 홍선교(창녕군농업기술센터) 지도사, 전기석(남해군농업기술센터) 지도사 등 3명의 공무원이 도지사 표창하였다.

또 강대훈(함안군)씨, 이인석(고성군)씨, 권형준(하동군)씨, 김만수(산청군)씨 등 4명의 농업인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정재민 농업기술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 해 동안 경남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과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군 성과에 축하를 드리며, 올 한해 노력한 결과를 밑거름으로 내년도도 활력 넘치는 농촌 지도사업 설계를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광남/대기자



economy

경제

문화매일

15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전남도, 무역의날 맞아 수출탑·유공자 포상

전라남도는 17일 영암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관으로 '제58회 무역의 날' 수출탑 및 유공 포상자 전수식을 개최했다.

전수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춘상 광주전남지협협회장, 장대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권재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수출탑을 수상한 기업과 유공자를 격려하는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다.

전남지역 수출탑 수상기업은 총 30개사다. 대한조선(주)이 6억 불 수출탑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주)시그넷비이가 5천만 불, 에이치에이엠(주), (주)케이에스, (주)백터네이트코리아가 3천만 불, 어업회사법인 케이푸드(주), (주)마이벨로가 2천만 불, (주)삼진 지.에프, (주)와이제이씨, 매일식품(주), 아이씨케이칼, 해송식품(주) 어업회사법인인 1천만 불을 수상했다. 또 (주)스위코진광, (주)청광신소재, 어업회사법인 (주)예원이 700만 불, (주)체사인터네셔널이 500만 불, (주)광양이엔에스, 농업회사법인 (주)골든힐, 쉐플루션(주), 어업회사법인 (주)열립푸드가 300만 불, 지에스코리아, (주)이천, 해신수산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네시피에프엔비, (주)창조산업, (주)에스피씨, (주)유원산업기술, (주)투케이코퍼레이션, 에스에이치캠텍, (주)도이프가 100만 불 수출탑을 받았다.

수출 유공 포상자는 총 15명이다. 오재희 대한조선(주) 기감이 석탑산업훈장을, 현대삼호중공업(주)의 김신우 수석매니저와 윤병태 직장인 산업포장을, 김중욱 어업회사법인 (주)예원 대표와 안명길 (주)엠티에스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와함께 이순창 (주)광양이엔에스 이사, 장윤진 (주)백터네이트코리아 이사, 오상호 매일식품(주) 대표, 아이씨케이칼의 공홍식 과장과 김한룡 차장, 김영록 쉐플루션(주) 대표, 박승룡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 이우진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리 등 8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서윤성 (주)이천 대표와 황재호 (주)마린테크노 대표가 한국무역협회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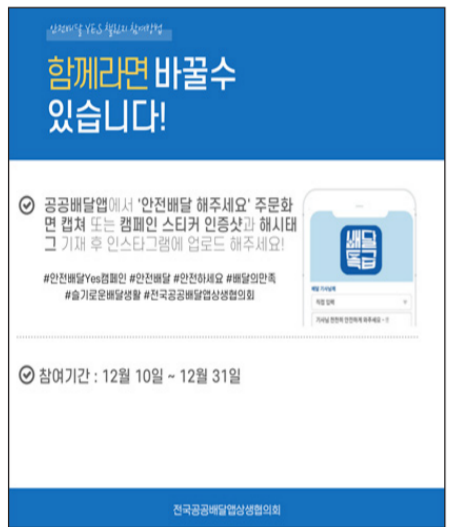
김영록 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남 기업인들의 독보적 기술력과 창의적 도전정신 덕분에 올해 전남 수출액은 역대 최대 실적인 420억 달러 달성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신남방·신북방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펼치고,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과 해외 상설판매장을 활용하길 전남 농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경기도, 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 '안전배달 SNS 캠페인' 진행

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 12월 31일까지 '안전배달 SNS 챌린지 캠페인' 진행



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로 최근에는 배달노동자 문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최근 민간배달앱이 단건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며 과도한 프로모션으로 배달노동자를 속도 경쟁에 몰아넣고, 이로 인해 배달노동자와 지역사회 안전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이륜차 사고는 6만 건에 육박하며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년보다 5.4% 증가했고 3명 중 1명은 배달 종사자라는 결과가 알려지기도 했다.

경기도주식회사 역시 회원사 중 하나로 토론회에 이어 이번 SNS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최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 노동자 안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주식회사가 제작한 웹드라마 '딜리버리'의 출연진 미연과 이태민, 지플랫 등도 '안전배달 스티커'를 들고 인증샷을 찍으면서 더욱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중이다.

이번 SNS 챌린지 캠페인은 공공배달앱 주문 화면에서 '안전배달 해주세요' 요청 사항이 보이도록 캡처한

뒤 SNS(인스타그램)에 특정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 안전배달 캠페인 스티커를 활용한 사진으로도 동일하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해피콜 후라이팬과 향산화애플 등 푸짐한 경품과 함께 배달노동자들에게는 마스크와 썬크림 등 후원물품도 전달될 예정이다.

또 챌린지 참여자당 1,000원을 적립해 총 적립액 상당의 건강식품을 전국 17개 지역 소외계층에게 후원할 예정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겸 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 회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배달노동자 안전 문제는 민간배달앱의 경쟁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번 SNS 챌린지를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업계 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도출까지 이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이벤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종료 이후 경품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진주시 중앙지구'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 선정



2019년 성북지구·2020년 강남지구 이어 3년 연속 선정 '핵거'

진주시 중앙지구가 2021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지구의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진주시는 2019년 성북지구, 2020년 강남지구 이어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진주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 확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원도심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원도심의 중앙상권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중심시가지 유형의 사업이다. '상무사의 후에 진주 : 중앙'이라는 비전으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원도심 성장혁신 거점 개발을 통한 중앙지구의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진주상무사, 중앙시장, 논계시장, 정과시장 등 지역 콘텐츠를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장대동 일원에 약 20만㎡ 규모로 국비 150억·도비 30억·시비 73억·뉴딜기금 15억 원 등 모두 2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에 본격 착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최광용/기자

LG 클로이 안내로봇, 저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를 도울게요!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를 위해 LG클로이 안내로봇도 나선다. 부산시는 LG전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LG로봇이 부산시청 내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LG 클로이 안내로봇'은 시설물 안내, 사이니지 광고, 순찰주행 보안 등을 위해 LG 전자가 최근 개발한 2세대 모델로, 전면과 후면에 2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15개의 센서로 장애물 인지와 자율주행 및 간단한 질의응답, 로봇과 사진찍기 등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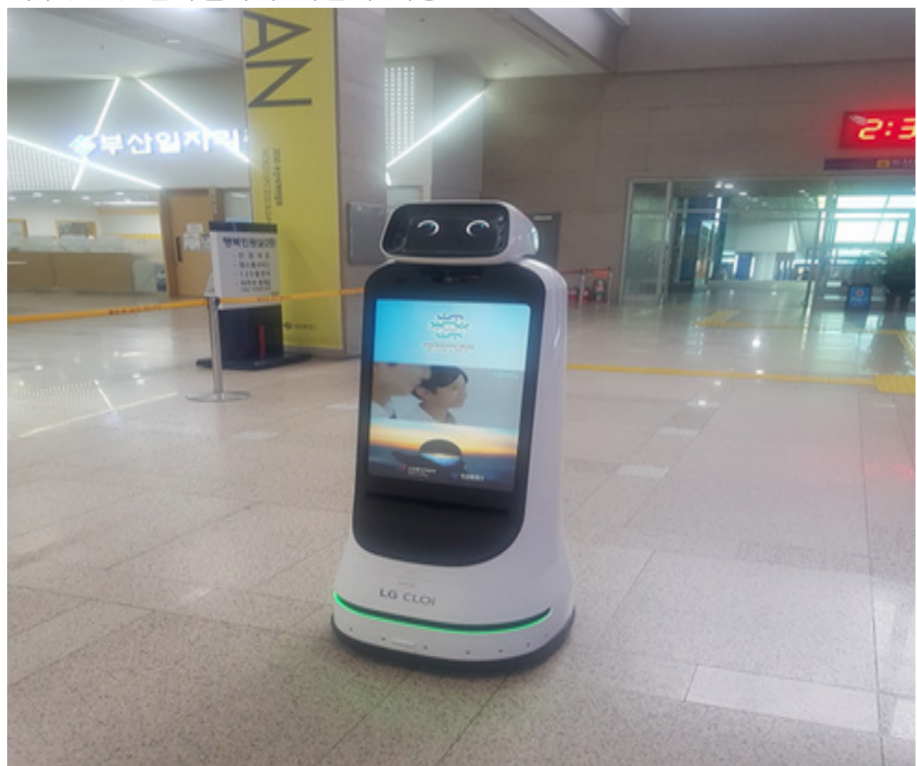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인천공항, 서울대병원, 한국마사회 등 전국 주요 기관과 호텔 등에 도입되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시가 최초로 도입한다.

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주제인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와 부제인 '인류를 위한 기술'의 목표인 인간과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혁신 시대의 전환에 적합한 콘셉트로 로봇 도입을 결정하고, 시청 1층 로비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를 위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LG는 정부유치위원회 부위

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LG로봇과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로봇 및 워커(43인치 디스플레이) 등을 제공하고 2030세계박람회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등 향후 다른 기업과의 협업 추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제박람회 기구(BIE) 현지실사가 내년에 예정



남궁영기/기자

16 문화매일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티빙 '술꾼도시여자들', 시즌2 확정

국내 대표 OTT 티빙(TVING)이 2021년 하반기 최고 인기 오리지널 콘텐츠 '술꾼도시여자들' 시즌 2 제작을 공식화했다. 이선빈-한선화-정은지-최시원 등 주연 4인방도 시즌2 출연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10월 22일 첫 공개된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은 미장 작가의 다음 웹툰 '술꾼도시처녀들'을 원작으로, 하루 끝의 술 한잔이 인생의 신념인 세 여자의 일상을 그린 본격 기승전승 드라마다.

이선빈(안소희 역), 한선화(한지연 역), 정은지(강지규 역)가 절대 주당들이자 절친 3인방으로, 최시원(강북구 역)이 정일점으로 유쾌한 매력을 보여줬다.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은 현실 우정, 직장인의 애환, 술자리 풍경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공유되며, 유튜브 공식 클립 영상 조회수가 공개 한달 만에 6천만 뷰를 돌파하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역대 오리지널 콘텐츠 중 주간 유료가입기여 수치 1위를 달성하며 4분기 티빙의 인기도 견인했다. 최종화 공개 이후에도 전편 돌아보기를 통해 콘텐츠를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하며 유료가입기여 수치가 유지되고 있다.

티빙 관계자는 "술꾼도시여자들' 시즌2를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드라마 종영과 동시에 발 빠르게 시즌2를 준비했다"며, "시즌2도 특유의 케미와 통통 튀는 에피소드로 오래된 술 친구처럼 더욱 위로와 힐링을 선사하는 현실 공감 드라마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티빙은 지난 해 10월 CJ ENM으로부터 분할하여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후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와 기술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업 강화를 위해 JTBC, 네이버 등과도 협력에 나선 티빙은 1년만에 '술꾼도시여자들', '여고추리반', '환상연애', '유미의 세포들', '아이돌만아 쓰기대회'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성공시키며, 시즌2 제작까지 확정하는 등 국내 대표 OTT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김효진/기자

이서진, 코믹 연기의 매력.. 티빙 '내과 박원장'

티빙 오리지널 '내과 박원장' 이서진이 역대급 과격 변신을 선보인다.

오는 1월 14일 공개되는 티빙 오리지널 '내과 박원장'은 16일, 짝나가는 개원의 '박원장'에 완벽 빙의한 이서진의 모습을 포착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이서진의 새로운 얼굴이 기대심리를 뜨겁게 달군다.

'내과 박원장'은 1도 슬기롭지 못한 초짜 개원의의 '웃픈' 현실을 그려낸 메디컬 코미디다. 진정한 의사를 꿈꿨으나 오늘도 파리 날리는 진료실에서 의술과 상술 사이를 고민하는 박원장의 적자탈출 생존기가 유쾌한 웃음과 공감을 선사한다.

여기에 광고계 '히트메이커' 서준범 감독이 극본과 연출을 맡아 트렌디한 감각의 코미디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를 높인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짝내마저 웃음으로 승화하는 박원장의 다이내믹한 모습이 담겼다. 마침내 갖게 된 '내 병원의' 안락한 원장실에서 새 인생을 시작한 박원장. 빛나는 민머리만큼이나 반짝이는 눈빛에서 성공에 대한 다부진 결의가 느껴진다.

여기에 책상 조명에 걸려있는 그의 가발은 한순간 폭소를 유발한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밀한(?) 비밀이 어떤 에피소드를 만들어낼지 궁금해진다.

이러진 사진에는 보조계 미소 만발한 박원장의 모습이 포착됐다. '개발랄 모드'를 가동한 그의 경쾌한 발걸음이 웃음을 자아낸다.

무슨 일인지 원장실 밖으로 빼꼼 고개를 내민 채 눈치를 살피는 박원장의 모습도 호기심을 자극한다. 야무지게 장착한 가발과 미어캣 같은 눈초리가 박원장 내과의 파란만장한 하루에 공금증을 자극한다.

이서진의 코믹 연기는 시청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관전 포인트. '박원장'으로 과격 변신한 이서진은 망가짐도 불사한 역대급 코믹 연기를 선보인다.

그가 연기하는 박원장은 의술과 상술 사이에서 머리 빠지게 고민하는 초짜 개원의다. '폭망' 직전의 내과를 번듯한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박원장



의 '피땀눈물'이 유쾌하게 그려질 예정이다.

이서진은 "어릴 때부터 코미디 장르를 좋아했다. 그때는 콩트가 대세여서 '유머 일번지' 같은 프로그램을 즐겨 봤고, 여전히 미국 코미디 드라마 시리즈인 '모던 패밀리'나 시트콤, 개그 프로그램을 좋아한다."

'내과 박원장' 역시 B급 코미디 감성이 있어 선택하게 됐다"라며 코미디 장르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

무엇보다 이서진의 역대급 변신에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그는 "배우로서 분장이나 변장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처음 분장을 한 날 스태프분들이 다 같이 웃었고, 머리가 노출되는 촬영에서는 현장의 모두가 환호를 해주셨다."

그분들의 리액션을 보고 '이번 분

장 좀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다"라고 전했다. 또 "포스터 공개 후, '이서진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댓글을 봤다.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라는 센스 넘치는 답변으로 기대를 높였다.

한편, 동명의 원작 웹툰 '내과 박원장'(글/그림 장봉수)은 네이버웹툰 베스트도전 조회수 400만 이상을 기록한 화제의 작품. 20년 경력의 전문의가 직접 그린 디테일하고 리얼한 이야기가 주목을 받았다.

특히 드라마 제작과 동시에 지난 10월부터 네이버웹툰 금요웹툰에 정식 연재를 시작해 기대를 더하고 있다. 티빙 오리지널 '내과 박원장'은 2022년 1월 14일 티빙에서 단독 공개된다.

최만식/기자

브로드웨이 뮤지컬 '알타보이즈' 열정 가득한 연습실 현장 공개!

전세계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알타보이즈'가 오는 18일 첫 공연을 앞두고 열기로 가득 찬 연습실 현장을 공개했다.

연출을 맡은 슈퍼주니어 은혁부터 주연을 맡은 뉴이스트 백호, 아스트로 윤산하, SF9 유태양, 골든차일드 Y(와이), 홍주찬이 연습에 매진하는 생생한 현장 사진이 첫 공연을 앞둔 이들의 실례는 소감과 함께 전해져 눈길을 끈다.

먼저 연습 현장 사진 속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연습실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백호, 윤산하, 유태양, Y, 홍주찬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화려한 메이크업이나 스타일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시선을 강탈하는 이들의 비주얼에서 극 중 K팝 최고의 아이돌 그룹을 방불케 하는 '알타보이즈'가 자연스레 연상된다. 또한 연출가 은혁이 골똘히 생각에 잠긴 모습에서는 연습 현장의 진지한 분위기가 엿보인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무한 열정을 발산하며 첫 공연의 화려한 개막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뮤지컬 '알타보이즈' 주역들의 소감과 기대를 전했다.

먼저 '알타보이즈'를 통해 뮤지컬 연출가로 데뷔하는 은혁은 "오래 전부터 무대를 만들고 관객들에게 퍼포먼스와 쇼를 보여주는 걸 정말 좋아했다."

슈퍼주니어 콘서트 연출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 연출 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 '알타보이즈'로 뮤지컬 연출 기회를 처음으로 갖게 되어 흔쾌히 도전했다"고 소감을 전하며 팬들에게 기대와 관심을 부탁했다.

'알타보이즈'에서 열정적인 리더 매튜를 연기하게 된 백호는 "뮤지컬이란 장르를 경험해 본 뒤로 새로운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에도 재미있고 좋은 작품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호는 지난 5월 (썬스퀘어(대표 신정화)가 제작한 창작 뮤지컬 '태양의 노래'로 뮤지컬 무대에 데뷔, 성공적으로 공연을 치른 바 있다.

뮤지컬 첫 도전에 나서게 된 윤산하는 "뮤지컬을 볼 때마다 언젠가 나도 저 무대에 꼭 한 번 서보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해왔다"면서 "뮤지컬은 처음이라 잘할 수 있을지 걱정

도 많이 했지만, 좋은 기회가 온 만큼 한 번 도전해 보기로 결정했다.

무대에 서는 게 너무 기대되고,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실례는 기본을 전했다. 그는 보이그룹 '알타보이즈'에서 작사를 담당하는 긍정적인 소년 에이브라함을 연기한다.

또한 유태양은 열정적이고 섹시한 면모를 자랑하는 후안 역을 연기하게 된 것에 대해 "열정적이고 섹시한 부분이 실제의 나와 닮은 것 같다"며 "멤버 모두가 각자 역할에 충실하게 열정적으로 연습을 해준 덕에 나 역시 더욱 힘을 내서 연습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워할 수 없는 악동 루크 역의 Y(와이)는 "첫 뮤지컬로 '알타보이즈'라는 최고의 작품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 멤버들과 함께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마크를 연기하는 홍주찬은 "모두가 굉장히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열심히 외우고 맞춰나가며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있다. 모두를 정말 칭찬하고 싶다"며 함께 호흡하는 멤버들과 연출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제작사 (썬스퀘어)는 "백호부터 윤산하, 유태양, Y(와이), 홍주찬은 물론이고 많은 연출진과 스태프들이 첫 공연을 앞두고 두고 주말도 없이 연습실을 오가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모두들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관객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알타보이즈'는 오는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KBS 아라나에서 완성도 높은 대본과 음악을 기반으로 한 블록버스터급 콘서트로 구현되며, 온라인에서는 공연 전문 글로벌 플랫폼 메타씨어터에서 중동 및 오세아니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서비스한다.

또한 CGV, 오픈스카이스퀘어하베스트 등 멀티플렉스 체인에서 라이브영으로도 만날 수 있다. 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티켓링크, 썬스퀘어 공식 SNS 및 메타씨어터 홈페이지와 공식 SNS, CGV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효진/기자

박문치표 캐롤 탄생! 세 달만에 깜짝 컴백 '12월의 단편'



프로듀서 박문치가 크리스마스 특별 시즌송으로 16일 깜짝 컴백한다.

박문치는 16일 오후 6시, 박문치 유니버스(강원우, 루루, 라라, 준구, 기린, 민석, 전호, 진호), 와 함께 한 캐롤 앨범 '12월의 단편'을 발매한다.

앨범에는 유니버스의 대화 음성을 담은 스킷(Skit) 트랙과 타이틀 곡 '세상이 나를 몰라도 (Feat. 강원우 & 박문치 유니버스)' 총 2곡을 담았다.

타이틀 곡 '세상이 나를 몰라도 (Feat. 강원우 & 박문치 유니버스)'는 박문치 유니버스의 강원우가 메인 보컬을 맡았으며 박문치를 포함한 유니버스 멤버가 모두 함께 대창에 참여하였다.

이번 곡은 202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며 만든 곡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하루하루 일상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곡이다.

또한 학창시절 수련회 장기자랑을 방불케 하는 연출로 제작된 뮤직비디오에는 박문치 유니버스 멤버 전원이 직접 출연하였고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된 메인보컬 강원우가 어린 시절 행복하게 음악했던 유니버스의 모습을 추억하며 감동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박문치는 최근 박문치 유니버스와 데이식스 영케이(Young K), 심어송 라이더 '조지' 등이 출연한 토크&라이브 음악 프로그램 '박문치 쇼'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며 큰 화제를 얻고 있으며, '뉴트로 전체'라는 별명으로 엑소 수호, 백현, 강다니엘, 권진아 등 여러 뮤지션들과 협업하며 프로듀서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최재은/기자



아미달러, BTS 팬덤과 성장!

최근 국내의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을 추진 중인 아미달러의 이원석 회장 인터뷰 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이원석 회장은 "저희가 아미 생태계를 위한 코인을 발행하게 된 것은 아미라는 특별한 팬덤에 의해 세계 최고의 한류 브랜드로 성장한 BTS로부터 1억명 넘는 지구촌 아미 구성원들이 적정 상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한 일이며, 아미달러는 BTS 팬덤을 위한 코인이며 팬 없는 대중스타가 없는 만큼 BTS 팬덤인 아미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아미달러는 앞으로 가상화폐가 현실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최초의 훌륭한 본보기로 성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모

습을 보는 게 아미달러 그룹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원석 회장은 "아미달러를 폄하하는 보도를 바로 잡으며 지금까지 모든 스타들의 성장에는 팬들의 사랑이 필수적이었고 그들의 열정적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전 세계 다양한 피파백을 가진 팬들은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BTS를 응원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 지갑을 열어 활동하는 만큼 아미달러는 팬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가상화폐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아미달러 측은 세계 주요 도시마다 가칭 '아미 월드'라는 공간을 만들어 아미달러라는 코인으로 커피나 음식, BTS 캐릭터 상품, 음반, 공연 티켓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세계 최고 인기의 아티스트와 팬을 문화적으로 연대하는 중요한 가교가

될 것이고, 팬들은 그로 인한 수많은 미래 이익을 직접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아미달러는 BTS 멤버들의 사진이나 자체 상표를 사용한 적이 없고, BTS ARMY CO.,LTD는 재단이 수년 전에 독자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ABTS 및 ARMYDOLLAR를 상표출원중에 있음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한 "백서에 기재된 경력은 사실이며 코인의 상승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목표는 한국인이 만든 코인이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시대를 개척하는 것이며, 아미달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유주/기자

